

KDB DAEWOO DAILY

2013. 7. 8 (월)

코스피지수 (7/5)	1,833.31P(-5.83P)
코스닥지수 (7/5)	525.40P(+0.18P)
KOSPI200지수 9월물	239.15P(-0.15P)
중국상해종합지수 (7/5)	2,007.20P(+1.10P)
NIKKEI225지수 (7/5)	14,309.97P(+291.04P)
원/달러 환율	1,142.30(+2.90)
엔/달러 환율	100.27(+0.24)
국고채 수익률 (3년)	2.95(+0.02)
유가(WTI) (7/6 06:14)	103.48(+2.42)
국내주식형펀드증감(7/4)	213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7/4)	-03억원
고객예탁금(7/4)	180,175억원(+2,256억원)
신용잔고(7/4)	44,982억원(+286억원)

시황전망

미국 신고가 주식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다

주간 경제포커스

미국은 좋으나...

채권시황

다시 뚫린 천장,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보수 준비

Weekly Money Flow

산업분석

음식료[비중확대] - 백운목: 2분기 고난의 시기, 3~4분기는?

항공/운송[증립] - 류제현: 한 여름의 설상가상

기업분석

삼성전자[매수] - 송종호: 실망...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미국 신고가 주식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떨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2/4분기 기업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도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와 주가는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가고 있고 이에 최적화하는데 성공한 기업의 주식들은 52주 최고를 기록 중이다.

1) 노블에너지와 EOG리소스

미국의 에너지개발 업체들로 미국 내 매출 비중은 각각 65%, 90%로 높다. 이들의 주가 상승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이 깊은데, 미국의 원유 자급률은 지난 4월 49.2%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 부근이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LNG선과 미국 내 파이프라인 증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 보잉과 제너럴다이나믹, 임텍

미국의 항공기 수주 증가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비국방 부문 항공기 주문 잔고는 지난 5월 4,413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민항기 주문의 증가는 여행객 증가와 관련돼 있는데,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 등 항공기 기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항공기의 수가 늘어나면 운임이 싸질 수 있으므로 여행사들에는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3) 아마존, 프라이스라인닷컴, 베스트바이

이들은 불황 이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가격 효율적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더 이상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지점을 보여준다.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매장 중 유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에 특화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설치가 어려운 제품은 여전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비싼 상품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 어렵다. 국내에 접목하면 롯데하이마트가 가장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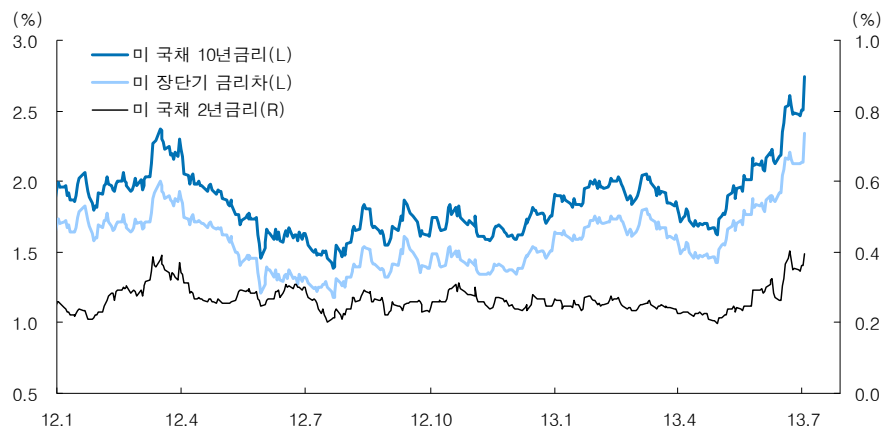
주식시장 변동성 당분간 유지될 전망

높은 변동성 유지 예상

주식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떨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모두 예상을 웃돌았고 그러자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많이 뛰었는데, 10년물 금리는 전고점을 상회했지만 2년물 금리는 전고점에 못 미쳤다.

이는 미 국채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 호전에 베팅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업률이 7.6%에 머물러 FRB의 목표인 6.5%에 다가가지 못하면서 단기 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됐다.

그림 1. 미 국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4분기 기업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도출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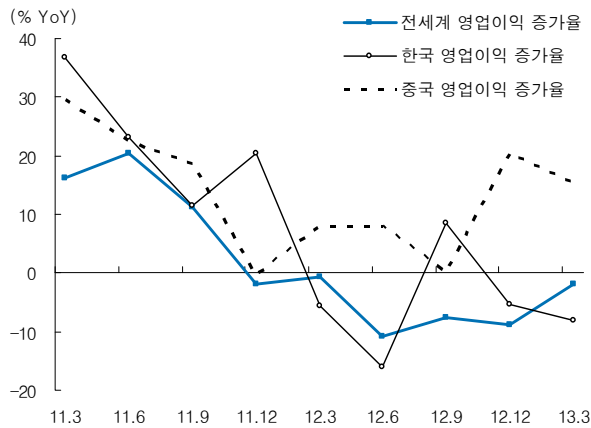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그림 2>는 MSCI 선진지수와 이머징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전세계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작년 2/4분기를 바닥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락 중이다. 두 나라는 각각 삼성전자와 금융업 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의 비중은 지난 2년 간 높아져왔다(다음 페이지 그림3 참조).

삼성전자는 2/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으나 헷셋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떨쳐내지 못했고 중국 금융주는 정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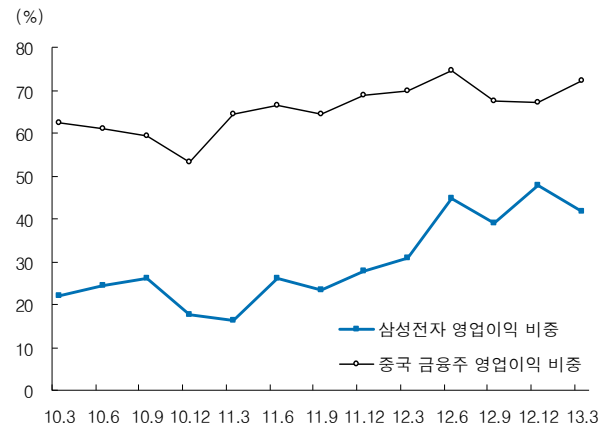
따라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보수적으로 추정된 KOSPI의 PBR 1배 선인 1,820p가 깨질 가능성은 낮다. 외국인 수급도 상반기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수 전반을 끌어올릴 매크로의 힘은 아직 약하다는 생각이다.

그림 2. 한국, 중국 영업이익의 증가율 하락 중



자료: WISEfn,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특정 주식, 업종의 높은 비중 때문



주: MSCI 선진, 이머징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 2010년 이후 분기실적이 존재하는 기업들 대상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

국내 주식시장은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향후 기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고, 미국의 경기 호조는 당장 국내 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럴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와 주가는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가고 있고 이에 최적화하는데 성공한 기업의 주식들은 52주 최고를 기록 중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려고 한다.

<표 1>은 52주 최고, 최저를 기록 중인 주가지수와 개별기업 주가를 표시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미국 금융주들의 무더기 신고가 경신이다. 이는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를 감안하면 당연하다.

표 1. 52주 최고 최저가를 기록 중인 주가지수와 주식

52주 최고가 종목명	국가	업종	52주 최저가 종목명	국가	업종
S&P600 스몰캡지수	미국	스몰캡	칠레주가지수	칠레	
나스닥금융지수	미국	금융	클리프내추럴	미국	철강
KBW은행지수	미국	은행	아페럼	네덜란드	철강
웰스파고	미국	금융	반푸	태국	석탄 광산
캐피탈원	미국	소비자금융	앵글로골드	남아공	금 광산
메트라이프	미국	보험			
마스터카드	미국	신용카드			
비자	미국	신용카드			
노블에너지	미국	에너지개발			
EOG리소스	미국	에너지개발			
보잉	미국	항공기 제조			
제너럴다이나믹	미국	항공기 부품			
암텍	미국	항공기 부품			
아마존	미국	온라인쇼핑			
프라이스라인닷컴	미국	온라인쇼핑			
베스트바이	미국	소매점			
시게이트	미국	컴퓨터부품			
테슬라	미국	전기차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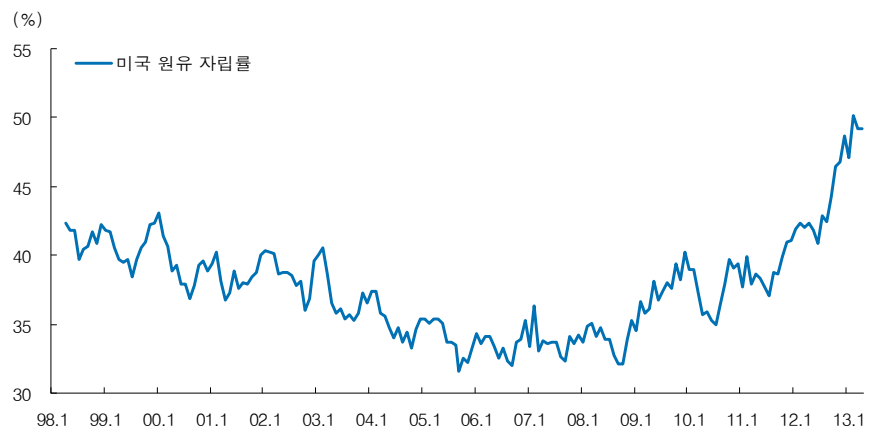
이외에도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달라진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

1. 미국의 에너지 독립 확산

노블에너지와 EOG리소스는 미국의 에너지개발 업체들이다. 두 회사는 주로 미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며, 멕시코만에서도 원유를 추출한다.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 비중은 각각 65%, 90%로 높는데, 이들의 주가 상승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이 깊다. 특히 노블에너지는 원가가 높은 록키산맥 지역에서도 에너지를 채굴한다.

미국의 원유 자립률은 지난 4월 49.2%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인 2월의 50.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림4 참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실현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LNG선과 미국 내 파이프라인 증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미국 원유 자립률 사상최고치 부근



자료: EIA, 미 에너지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항공기 수요 증가

전세계 여행객 증가로 미국
민항기 수주 급증

보잉과 제너럴다이나믹, 암텍의 52주 최고가 경신은 미국의 항공기 수주 증가와 관련이 있다. 다음 페이지 <그림 5>는 미국의 항공기 및 부품의 주문잔고를 국방과 비국방으로 나눠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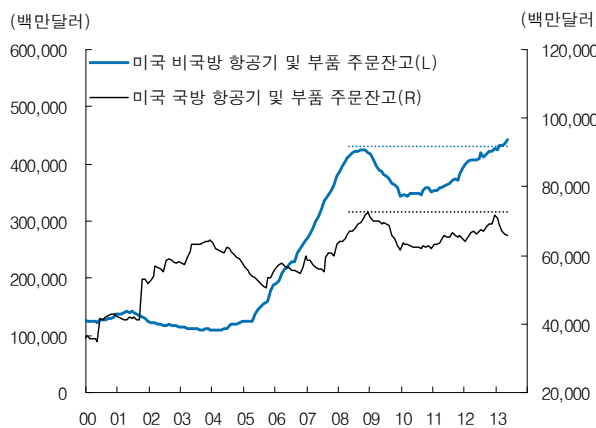
비국방 부문 주문 잔고는 지난 5월 4,413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국방 부문 잔고는 658억달러로 작년 12월에 기록한 고점 715억달러대비 7.9% 감소했다. 국방 부문의 부진은 3월 1일 발동된 시퀘스터 때문이다.

민항기 주문의 증가는 여행객 증가와 관련돼 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저가 항공사의 숫자가 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들은 수혜를 입기 어려울 것이다(다음 페이지 그

림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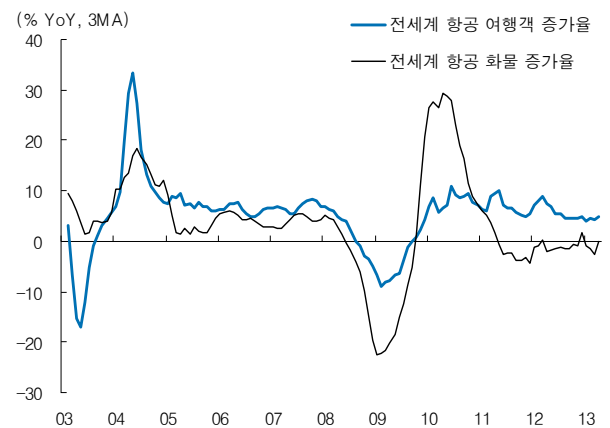
대신 한국항공우주 등 항공기 기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항공기의 수가 늘어나면 운임이 싸질 수 있으므로 여행사들에게는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5. 미국 민항기 주문 사상최대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항공 화물은 줄어도 여행객은 꾸준히 늘어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도 여행 증가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비자의 경우를 보면 전체매출에서 해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4분기 25.6%에서 2012년 2/4분기에는 29.3%까지 상승했다. 올해 1/4분기에는 28.7%였다. 이 역시 아시아 신흥국의 여행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 패턴 효율화와 한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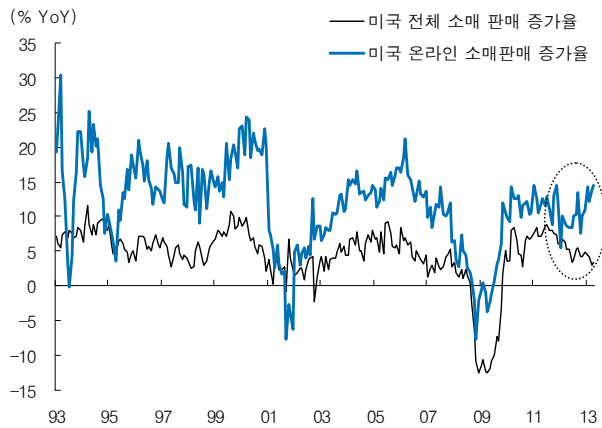
아마존, 프라이스라인닷컴, 베스트바이는 불황 이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가격 효율적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더 이상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지점을 보여준다. 아마존, 프라이스라인닷컴은 가격 결정력을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마존은 하루에 몇 번씩 제품 가격을 수급에 맞춰 바꾸고 프라이스라인닷컴은 역경매를 한다.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매장 중 유일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베스트바이가 가전제품에 특화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설치가 어려운 제품은 여전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 특히 TV 등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구매가 선호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체험을 할 수 없고, 배송되지 않을 위험을 감안해도 제품의 가격이 싸고 배송이 빠르기 때문이다. 즉, 돈과 시간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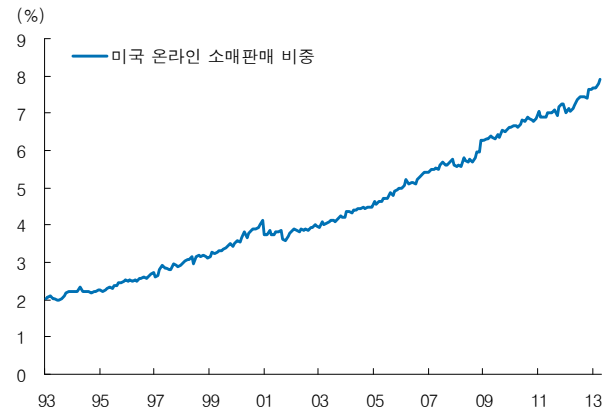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비싼 상품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 어렵다. 국내에 접목하면 롯데하이마트가 가장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7. 미국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 잠식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온라인 판매 비중 지속적으로 상승 중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전기차도 합리적 소비패턴의 연장선

전기차 테슬라는 합리적 소비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테슬라 Model S (60kw-hr battery pack)는 갤런당 95마일을 주행한다. 유사한 모델로 제시돼 있는 포드의 C-Max 하이브리드는 47마일을 주행한다(그림9 참조).

테슬라의 연비가 두 배 가까이 효율적이지만 자동차의 가격은 테슬라의 차가 6만9,900달러로 포드의 2만8,365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다. 아직 가격 측면에서 약점이 남아있으나 점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고 미국의 전기 가격이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우위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림 9. 전기차, 좋은 연비 앞세워 시장 확대 중

ELECTRICITY 95 Combined Miles per Gallon Equivalent 1 gallon of gasoline=33.7 kW-hr	×	×	REGULAR GASOLINE 47 Combined Miles per Gallon
	2013 Tesla Model S (60 kW-hr battery pack)	2013 Ford C-MAX Hybrid FWD	
	Electric Vehicle	Hybrid Vehicle	
			
	Automatic (A1)	2.0 L, 4 cyl, Automatic (variable gear ratios)	
	MSRP: \$69,900	MSRP: \$25,200 - \$28,365	

자료: 미 에너지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렇다면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SDI, LG화학 등의 배터리 업체들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시게이트는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만큼 수혜를 입는 데이터 저장제품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기업들이 있다.

최고가를 기록중인 주식들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사상최고 기록중인 종목이 힌트

국내 주식시장이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향후 기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고, 미국의 경기 호조는 당장 국내 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럴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돼 있거나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국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이지연 02-768-4058 gianna.lee@dwsec.com
서대일 02-768-3069 daeil.suh@dwsec.com

미국은 좋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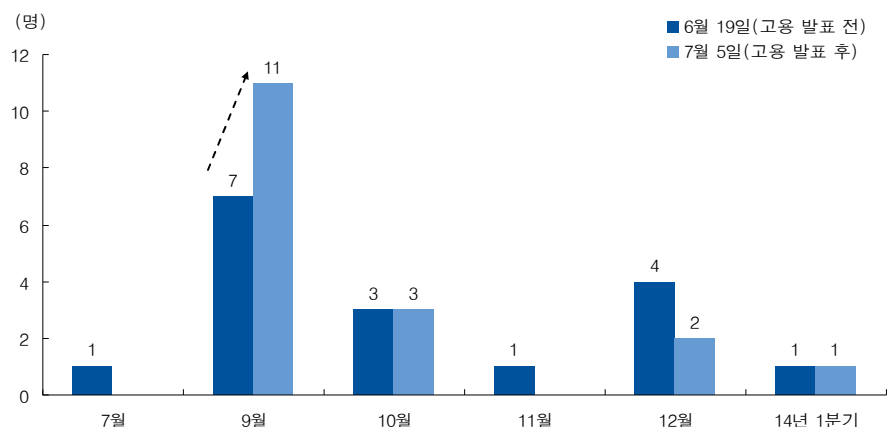
예상 밖 고용 호조에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6월 비농업 신규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분기 연속 20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했다. 구조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직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고용 증가가 재정긴축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고 있고 임금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고용 지표 발표 이후 연준과 유동성 거래를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9월을 예상하는 딜러들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10일(목) 밤,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설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거나 기존 하반기 중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견해는 변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6월 중국 수출과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중국 정부의 개혁 중심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추가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 미국 프라이머리 딜러 서베이: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연준 자산매입 축소 예상시점 앞당겨져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 다시보기

1) 미국 고용: 예상치 상회한 증가, 자산 매입 축소 시기 앞당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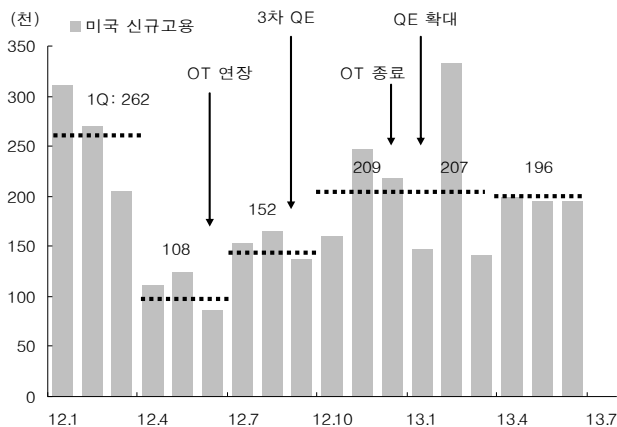
미국 6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전월비 19만 5천명 증가를 기록하며 예상치(16만 5천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또한 4~5월 신규고용이 총 7만명 상향 조정 되었다. 민간부분(+6만명)과 정부부분(+1만명)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 고용 감축 충격은 예상 보다 덜한 반면, 민간 고용 회복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2분기 월평균 고용증가는 19만 6천명으로 1분기 평균(20만 7천명)과 비슷한 고용 증가 속도를 유지했다.

또한 시간당 임금도 전월대비 상승 폭이 확대(0.1%→0.4%)되며 소비 증가에 힘을 실어 주었다.

부분별로는 레저(7만 5천명), 전문서비스(5만 3천명), 소매업(3만 7천)이 전월비 개선을 이끌었다. 최근 주춤했던 건설업 부분(1만 3천명)도 주택경기 회복세에 전월비 개선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제조업 부분(-6천명)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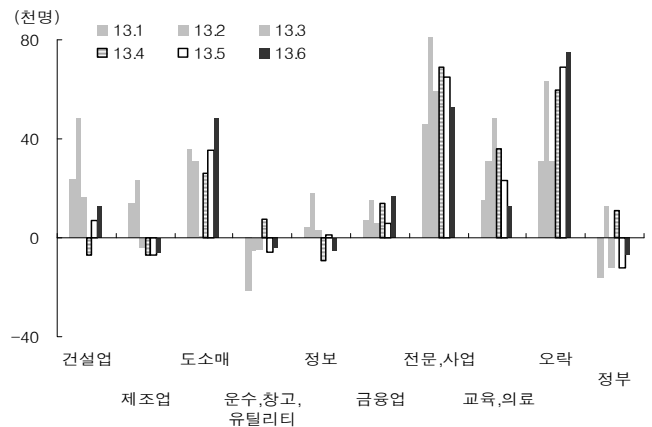
정부부분 고용은 5월 대비 감소세가 축소(-1만 2천명→-7천명)되었고, 이중 재정긴축의 영향을 받는 우편서비스를 제외한 정부 고용 감축도 가팔라지는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8천→-5천).

그림 2. 6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전월비 19만 5천명 증가. 3분기 연속 안정적인 증가로 QE 축소 시점에 대한 시장 예상 앞당길 듯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이 호조를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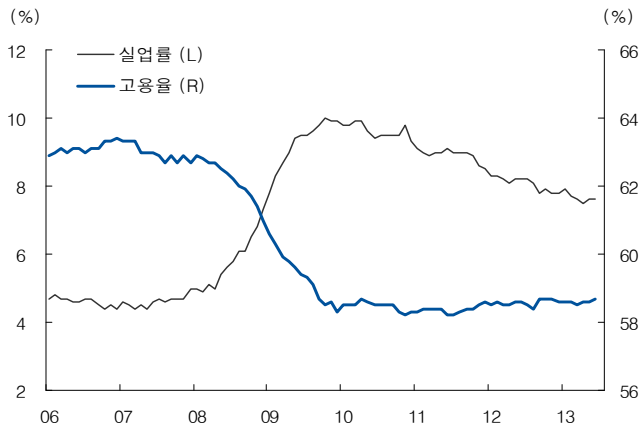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실업률은 7.6%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63.4%→63.5%)이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고용률(58.6%→58.7%)도 반등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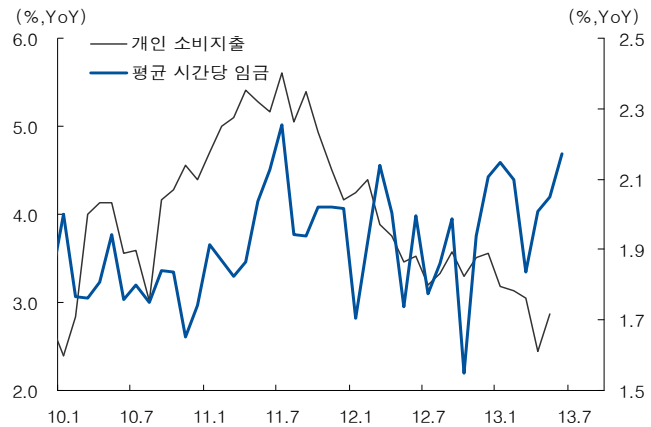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시장의 회복세로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시점이 최소 4분기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고용 감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 호조가 3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는데다 민간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이어지며 완만한 고용 증가세를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4. 실업률은 정체, 고용률은 소폭 개선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시간당 임금 개선 폭 확대, 소비 개선 이끌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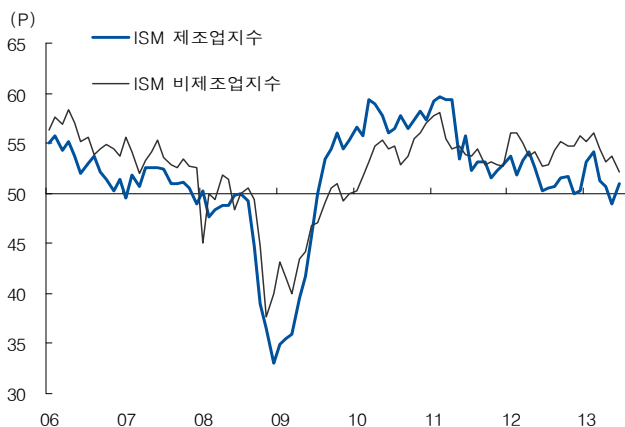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체감경기지표: 제조업 경기 반등 시그널?

체감 경기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모두 확장국면에 놓여있어 민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 주었다. 6월 ISM 제조업 지수는 50.9를 기록하며 예상치(50.5)를 상회했다. 이로써 1분기 후반 이후의 부진은 진정되었다. 선행성을 나타내는 신규수주 지수도 전월비 3.1p 개선되며 지난달 위축국면에서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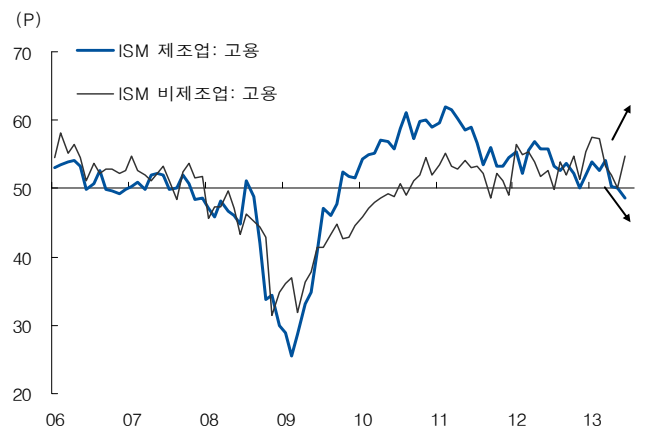
반면 ISM 비제조업 지수는 신규 수주 부진에 전월비 1.5p 하락한 52.2를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확장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지수는 전월비 4.6p 상승한 54.7을 기록했다. ISM 제조업 지수의 고용지수가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과 대조적으로 당분간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6월 ISM 제조업 지수, 확장국면으로 반등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미국 고용은 당분간 서비스업 고용이 이끌 듯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 미리보기

1) 미국: 버냉키 의장 연설, 기존 입장 재확인 예상

미국에서는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고용 지표 호조를 감안 할 때, 양적완화 축소가 하반기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와는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시사해 최근 금리 상승 속도와 변동성을 다소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점차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기에 버냉키 의장 연설이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 시장은 18일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속보치도 발표되는데, 주택 및 고용지표 호조, 6월 말부터 반등한 주가 등을 감안할 때, 6월 대비 개선세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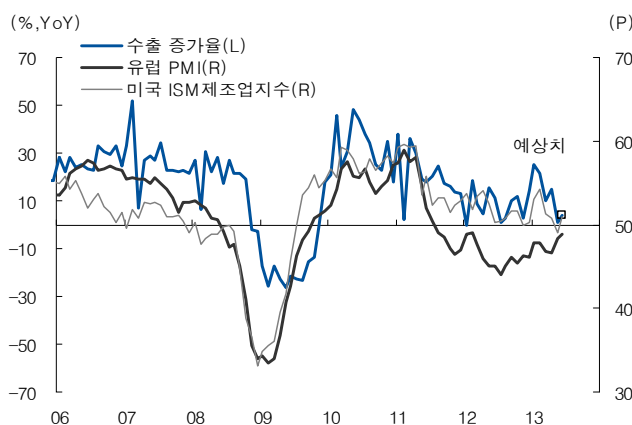
2) 중국: 개선 모멘텀 부진 양상 지속될 듯

이번 주에는 미국 지표 발표가 한산한 가운데, 중국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수출 부진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화될 것인지가 관건이나 기존의 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중국 수출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홍콩과 중국 본토간 수출 과대 계상에 대한 정부 단속과 위안화 절상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 이상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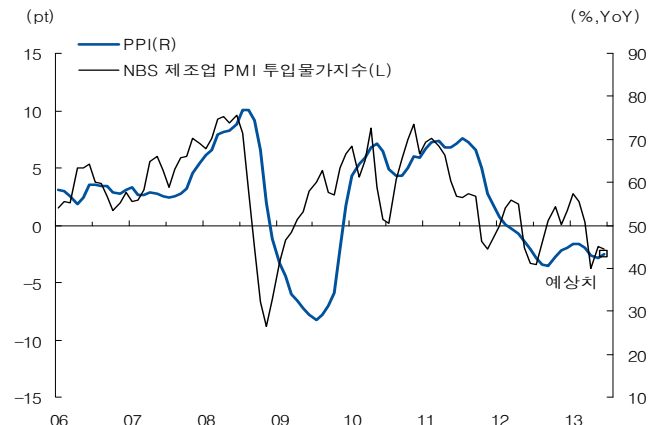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가격 상승에 5월 대비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이전치: 2.1%→예상치: 2.5%)이나 정부 긴축 영향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들의 재고 조정을 반영해 전년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조업 PMI의 하위 항목인 투입물가지수도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다.

그림 8. 중국 6월 수출 반등 예상. 기저 효과 수준일 듯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중국 생산자물가, 재고 조정과 수요 위축으로 하락세 지속 예상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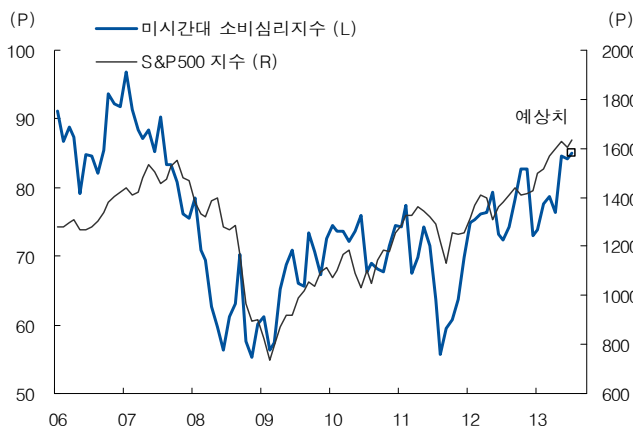
지난 3일 리커창 총리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위해 국가 유후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성장률의 추가 둔화는 막으려는 의지는 보이나 추가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당분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럽: 포르투갈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예상

유럽에서는 월~화 EU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일 트로이카(EU, IMF, ECB)가 그리스의 공공 부문 인원 감축 목표 시한 연장요구(6월→9월)를 받아들이면서, 구제금융 집행을 위한 합의는 마무리 되었다. 81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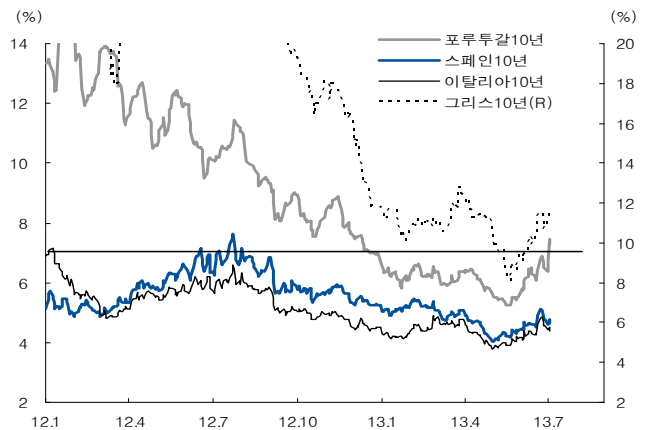
최근 포르투갈의 재무 및 외무장관 사임과 연정 붕괴에 대한 우려로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금리가 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4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상당기간 동안 기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했다는 점, OMT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EU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미국 6월 마지막 주 이후 주가 반등, 소비심리에 긍정적 요소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정치 불안 확대에 포르투갈 10년물, 7% 상회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일정	주요지표	단위	예상치	이전치
8일(월)	일본 5월 경상수지	십억엔	595.0	750.0
	유로 7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Index	-12.5	-11.6
	미국 5월 소비자신용	십억\$	13.0	11.0
9일(화)	유로 재무장관회의			
	중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2.5	2.1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비%	-2.6	-2.9
	유로 EU 재무장관회의			
10일(수)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	-9.6
	한국 6월 실업률	%	3.2	3.2
	미국 5월 도매재고	전월비%	0.3	0.2
	중국 6월 무역수지	십억달러	\$29.0	\$20.4
	중국 6월 수출	전년비%	3.8	1.0
	중국 6월 수입	전년비%	6.1	-0.3
	미국 18-19 FOMC 의사록			
	미국 Fed's Bernanke Speaks on Economic Policy in Boston			
10-15일	중국 6월 신규 위안 대출	십억위안	800.0	667.4
	중국 6월 M2	전년비%	15.2	15.8
11일(목)	한국 금통위 기준금리	%	2.5	2.5
	일본 일본은행 정책금리	%	—	—
	미국 6월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	-1.9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35	343
	미국 6월 재정수지	십억달러	40.0	—
	미국 Fed's Tarullo Testifies on Regulation to Senate Banking			
	유로 이탈리아 장기국채 입찰			
12일(금)	유로 5월 유로권 산업생산	전월비%	-0.2	0.4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비%	0.5	0.5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속보치)	Index	85	84.1
	미국 Fed's Williams Presents a Monetary Policy Paper in Vancouver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 발표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미국 지표는 해당일 저녁 이후 익일 새벽까지 발표되는 지표를 포함

Fixed Income Weekly

다시 뚫린 천장,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보수준비

채권분석
2013. 7. 8

윤여삼
02-768-4022
yeosam.yoon@dwsec.com
이현주
02-768-4143
hyunjoo.lee@dwsec.com

채권시장 공포국면 지속,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추세상승은 쉽지 않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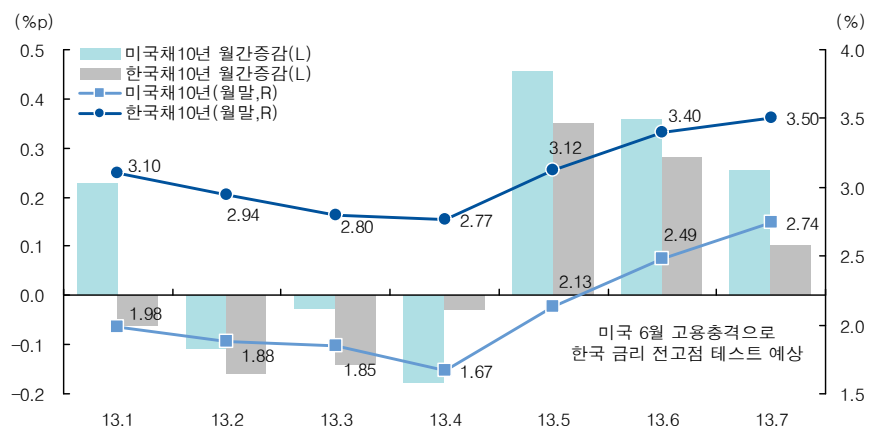
우리는 '7월 월보: 공포를 극복할 이성의 조건'을 통해 6월에 기록한 국내외 주요시장의 금리수준이 올해 연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고서를 발간한지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로 인해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전 장중고점을 7bp나 넘어선 2.74%까지 올라섰으며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당장 글로벌 채권시장의 공포국면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올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양호한 지표영향으로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애초 우리가 예상한 12월보다 9월로 앞당겨질 경우 미국 주가약세 등 금융시장 혼란의 가능성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만 잘나가는 경기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경제의 균열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달러강세와 자금이동 충격으로 최근 중국과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점은 부담요인이다.

당장 이번 주 국내금리가 이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매수관점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내기관들의 얹어진 수급여건은 시장금리에 대한 지지력이 약할 것이다. 최근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이어지며, 커브가 스티프닝이 진행되는 것 역시 이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당분간 다시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면서, 주요국 주식시장 약세흐름에 주목하면서 반전의 트리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월간 미국과 한국 10년 금리추이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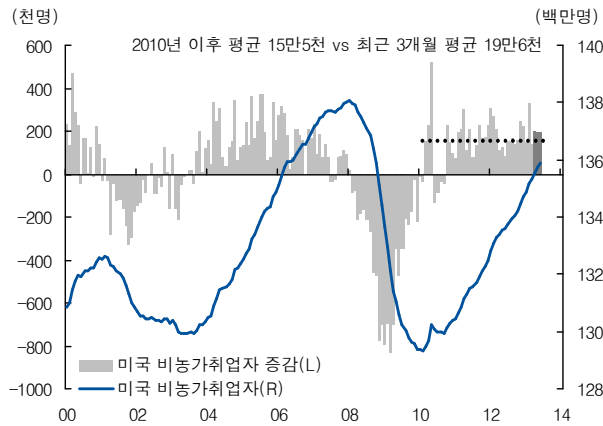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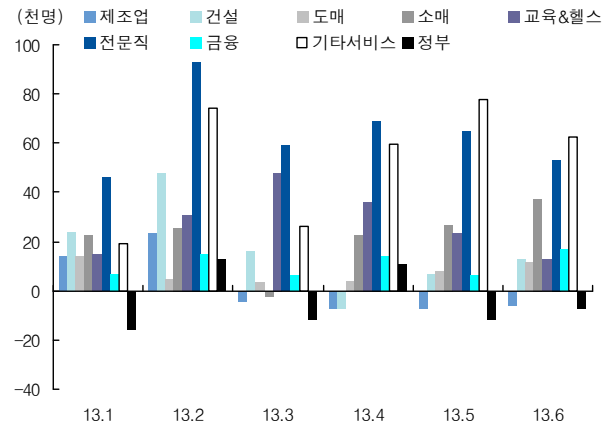
Weekly Financial Market Check point

그림 1. 미국 6월 비농가취업자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9만 5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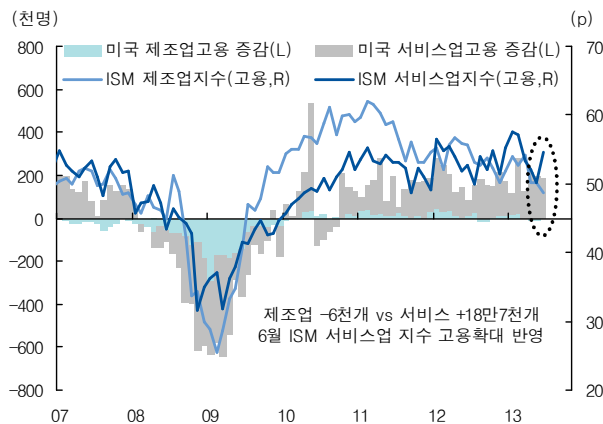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 2. 올해 제조업과 정부고용 부진하나, 서비스 고용은 꾸준히 늘어



자료: US BLS

그림 3. 6월 ISM 지수에서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고용이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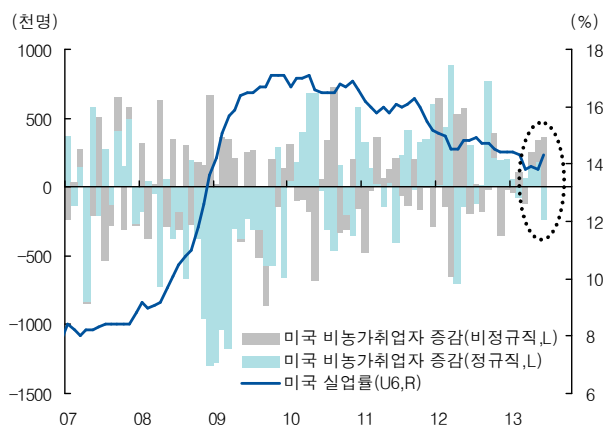
자료: US BLS, ISM

그림 4. 그렇지만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7.6%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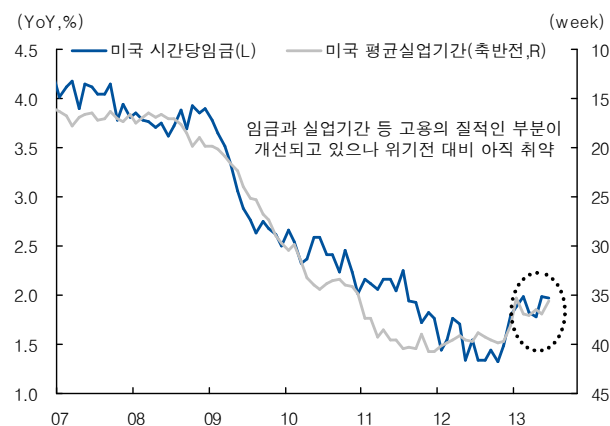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 5. 6월 비정규직 고용증가 큰 폭 상승, U6 실업률 증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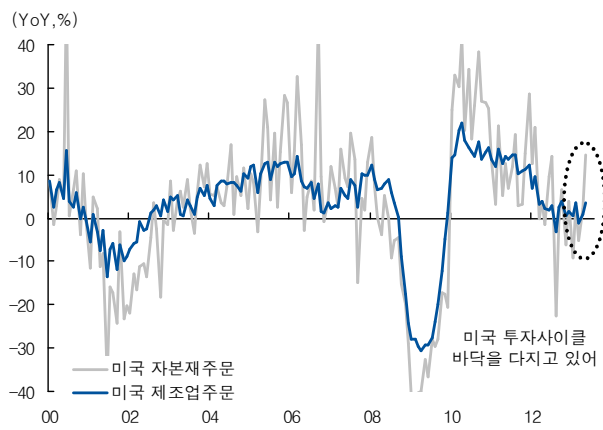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 6. 고용의 질적인 개선 진행, 그러나 과거수준 대비 부족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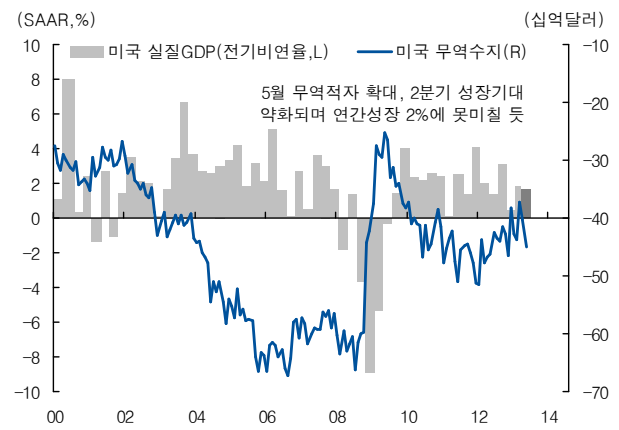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 7. 미국 5월 투자관련 선행지표 바닥 다지기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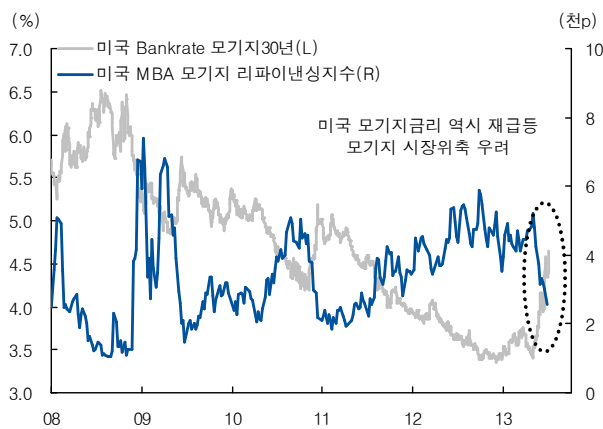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8. 미국 5월 무역적자폭 확대로 2분기 성장을 1분기보다 부진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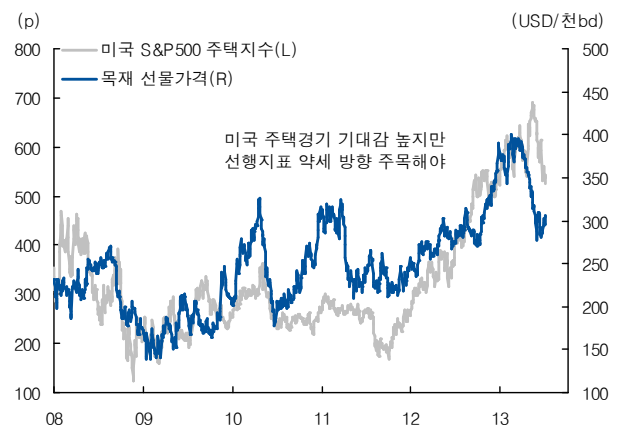
자료: US BEA

그림 9. 미국 모기지금리 채차 급등, 주택시장 개선분위기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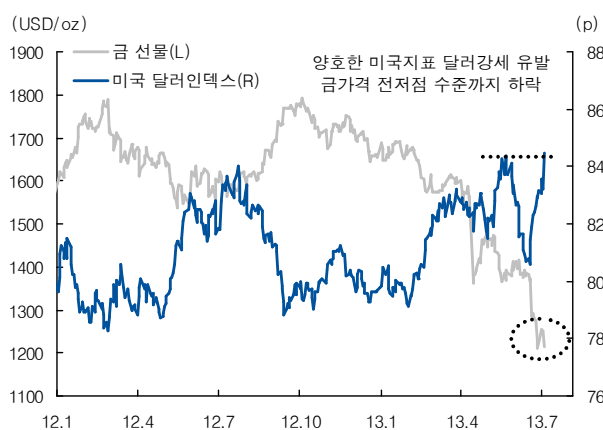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0. 미국의 주택관련 주가와 목재가격 등 약세 흐름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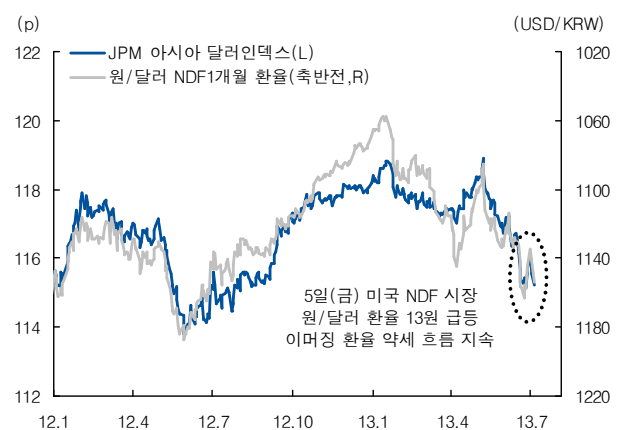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1. 미국 달러강세, 금가격 다시 이전 저점 테스트



자료: Bloomberg

그림 12. 이머징 통화약세 우려감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의보



자료: Bloomberg

그림 13. 주간 주요 투자주체별 국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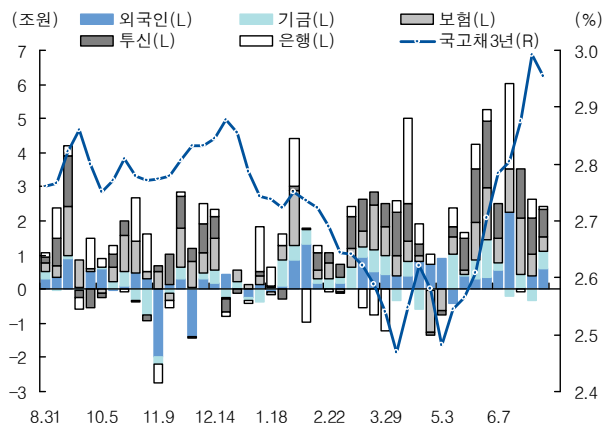


그림 14. 주간 외국인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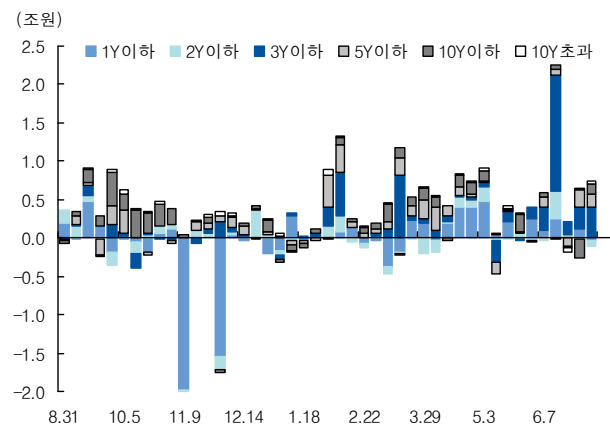


그림 15. 주간 연기금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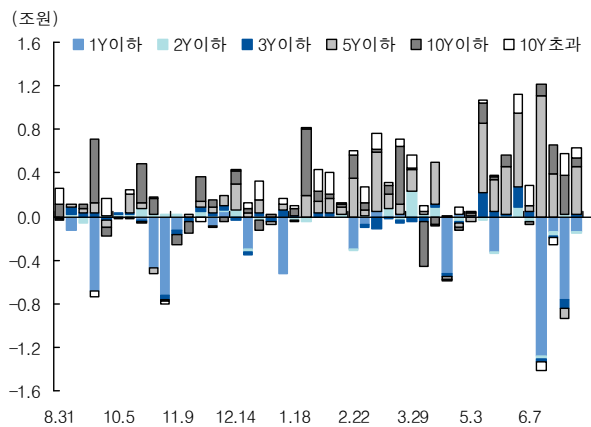


그림 16. 주간 보험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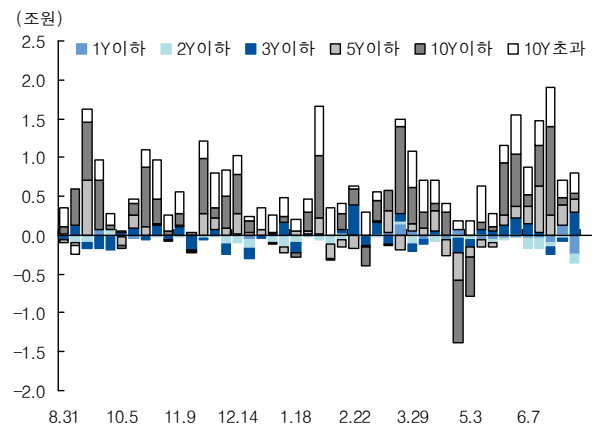


그림 17. 주간 투신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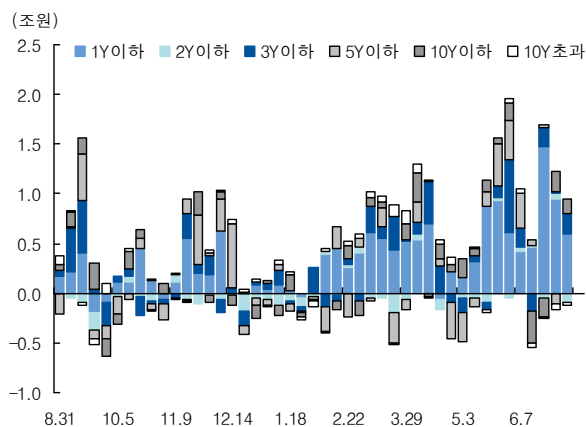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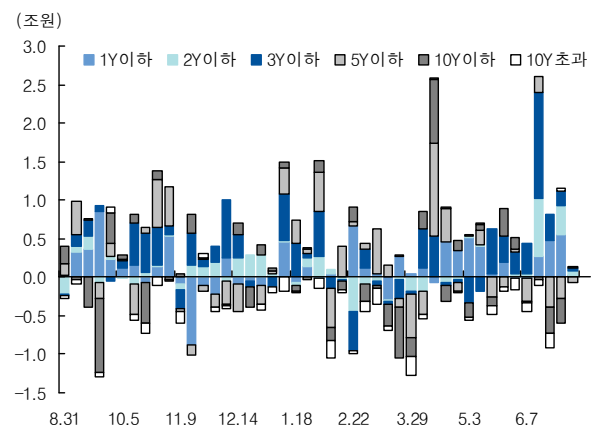


그림 18. 주간 은행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채권시장 공포국면 지속,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추세상승은 쉽지 않다는 생각

우리는 '7월 월보: 공포를 극복할 이상의 조건'을 통해 6월에 기록한 국내의 주요시장의 금리수준이 올해 연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고서를 발간한지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로 인해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전 장중고점을 7bp나 넘어선 2.74%까지 올라섰으며 변동성도 확대되었다<그림 19>**. 당장 글로벌 채권시장의 공포국면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올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양호한 지표영향으로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실시가 애초 우리의 예상인 12월보다 9월로 앞당겨질 경우 미국 주가약세 등 금융시장 혼란의 가능성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만 잘나가는 경기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경제의 균열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달러강세와 자금이동 충격으로 최근 중국과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점은 부담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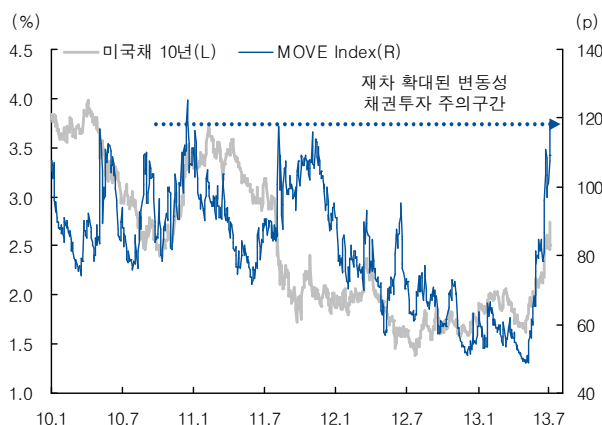
먼저, 미국의 양호한 경기여건만 가지고 현 수준에서 글로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6월 미국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회복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비농가취업자 증가이 19만5천건 늘어난데다, 이전 데이터의 경우 4월 14만9천 → 19만9천, 5월 17만5천 → 19만 5천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전문직과 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지표 강세흐름을 나타냈다<그림 1~3>.

그럼에도 6월 실업률은 구직포기자들의 일할 의지회복으로 전월과 동일한 7.6%에 머물렀으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하락속도가 더딜 전망이다<그림 4>. 이는 최소 고용희망자와 비정규직(part-time) 노동자가 포함된 U6 실업률이 전월 13.8% → 14.3%로 상승한 것에도 반영되어 있다<그림 5>. 고용의 질적인 데이터인 평균실업기간이나 시간당 임금이 개선되고 있으나, 과거 양호한 경기여건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미국경제 회복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다<그림 6>.

그리고 미국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투자의 선행지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저축(현금잉여)이 제대로 풀린다는 소식은 요원하다<그림 7>. 예상보다 큰 5월 무역수지 적자확대로 인해 전기비연율 2분기 미국 실질 GDP는 1.8%까지 하향 조정된 1분기보다도 낮은 1.7%가 컨센서스이다<그림 8>. 1~2분기 성장을 고려할 때 올해 미국은 2%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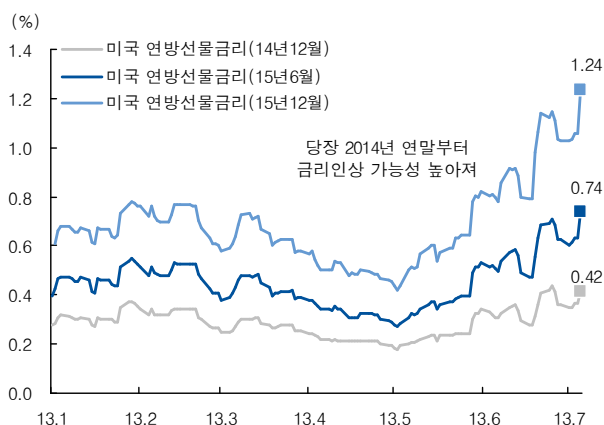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와 동반해 급등한 모기지 금리는 주택시장의 위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그림 9>. 미국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목재가격과 S&P500 주택지수(homebuilding)가 약세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근거가 되고 있다<그림 10>.

그림 19.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미국채 10년과 변동성 이전고점 돌파



자료: Bloomberg

그림 20. 미국 채권시장 tapering에서 tightening으로 공포심리 확대



자료: Bloomberg

결정적으로 실제 과거 QE1, 2의 종료시점의 학습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양적완화 축소국면에서 무탈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당장 9월부터 매월 850억 달러씩 공급되면 유동성의 양이 줄어들면 미국 주식시장은 중요한 상승추진체를 잃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양적완화 축소 확정시 미국 주식시장의 10% 정도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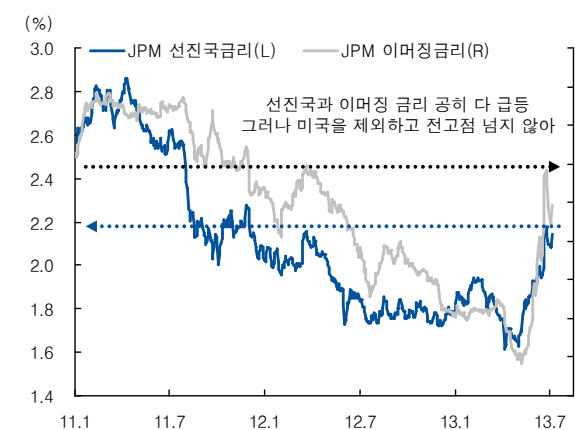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보다도 먼저 달러강세에 따른 이머징 주식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주말 달러인덱스는 84.45p로 전일대비 1.46% 강해졌으며,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섰다. 덕분에 금가격은 이전 저점수준인 온스당 12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고, NDF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전일대비 13원 오른 1154.2 원을 기록했다<그림 11, 12>. 최근 이머징의 경우 단순히 금융시장 불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기 둔화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당장 이번 주 국내금리가 이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매수관점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내기관들의 얹어진 수급여건은 시장금리에 대한 지지력이 약할 것이다. 최근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이어지며, 커브가 스티프닝이 진행되는 것 역시 이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당분간 다시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면서, 주요국 주식시장 약세흐름에 주목하면서 반전의 트리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미국금리 충격으로 시장의 공포심리가 확대될 것이나, 지난 주말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이머징 평균금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그림 21>. 아시아 쪽 금리상승 강도에 따라 이번 주에 지난 고점을 넘어설지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국내 투자자의 경우 일부 급한 물량을 제외한 손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 국내 이슈로는 7월 금통위와 한은의 '경제전망수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대외 쪽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은 완화도 긴축도 어려운 중립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 일부 금통위원 중 1994년과 1999년의 예를 들어 글로벌 머니무브 충격에 대비한 통화정책 방향선회에 대해 언급할 수 있으나, 아직 야무지지 못한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은의 경제전망은 연간 성장률 2.6% → 2.7~2.8%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경기둔화 우려로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그림 21. 미국과 달리 선진국과 이머징 모두 이전 고점 넘지 않아



자료: JP Morgan

그림 22. 한국 장단기 금리차 확대압력 증가, 그러나 되돌림 있을 듯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참고: 미국 연준관련 인사 발언 정리 및 성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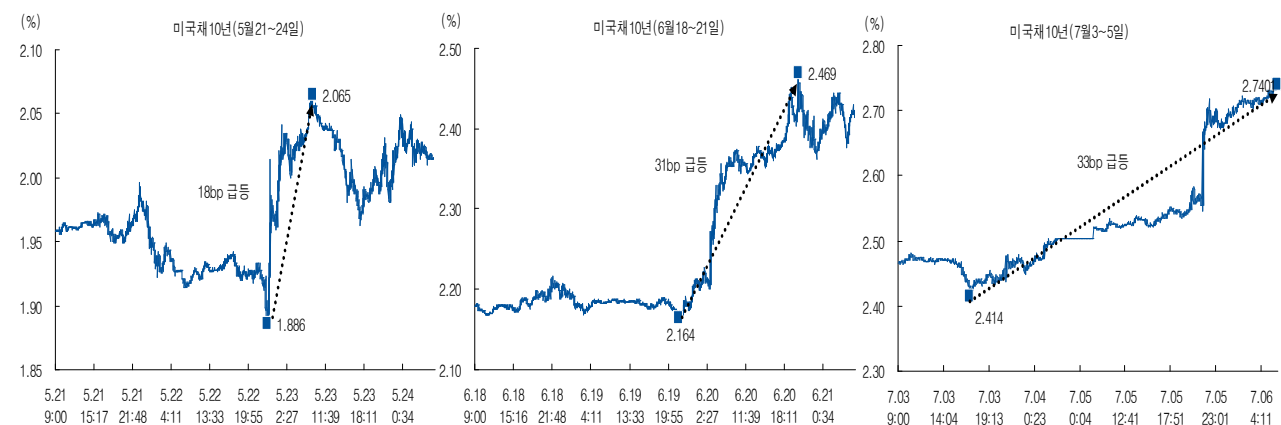
표 1. 6월 이후 연준 인사 발언

날짜	소속	이름	성향	투표권		발언 내용
				2013	2014	
6.4	샌프란시스코	윌리엄스	비둘기 (최근 매)	X	X	빠르면 올 여름부터 자산매입 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
6.10	세인트루이스	볼라드	중도 (최근 비둘기)	○	X	2% 인플레이션 하회하면 자산매입 유지 가능
6.19	연준 의장	버냉키	비둘기	○	○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기대에 부합한다면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 축소, 내년 중반 중단 가능
6.21	세인트루이스	볼라드	중도	○	X	인플레이션 2% 도달하지 못하면 자산매입 속도를 높여야 함
6.23	세인트루이스	볼라드	중도	○	X	버냉키 의장의 결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음 더 분명한 경제회복, 인플레이션 신호를 기다렸어야 했음
6.24	댈러스	피셔	매	X	○	양적완화 축소 전적으로 동의, 투자자들은 연준의 계획에 과잉반응해서는 안됨
6.24	미니애폴리스	코컬라코타	중도	X	○	실업률이 최소 7%로 떨어질 때까지 자산매입 지속해야
6.24	뉴욕	더들리	비둘기	○	○	미국의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연준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함
6.26	리치몬드	래커	매	X	X	양적완화 축소해야 함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융시장에 변동성만 가져올 뿐
6.28	연준이사	스테인	비둘기 (최근 중도)	○	○	오는 9월 양적완화 축소 시작될 것
6.28	뉴욕	더들리	비둘기	○	○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연준 전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양적완화 더 오랫동안, 더 큰 규모로 유지할 것
6.28	아틀란타	록하트	비둘기	X	X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시장 반응 과도했고 양적완화는 지속될 것
7.2	뉴욕	더들리	비둘기	○	○	내년 미국 성장 빠를 것. 하지만 조기 금리인상은 없고 경제지표 좋지 않으면 양적완화 확대도 가능

주: 회색음영은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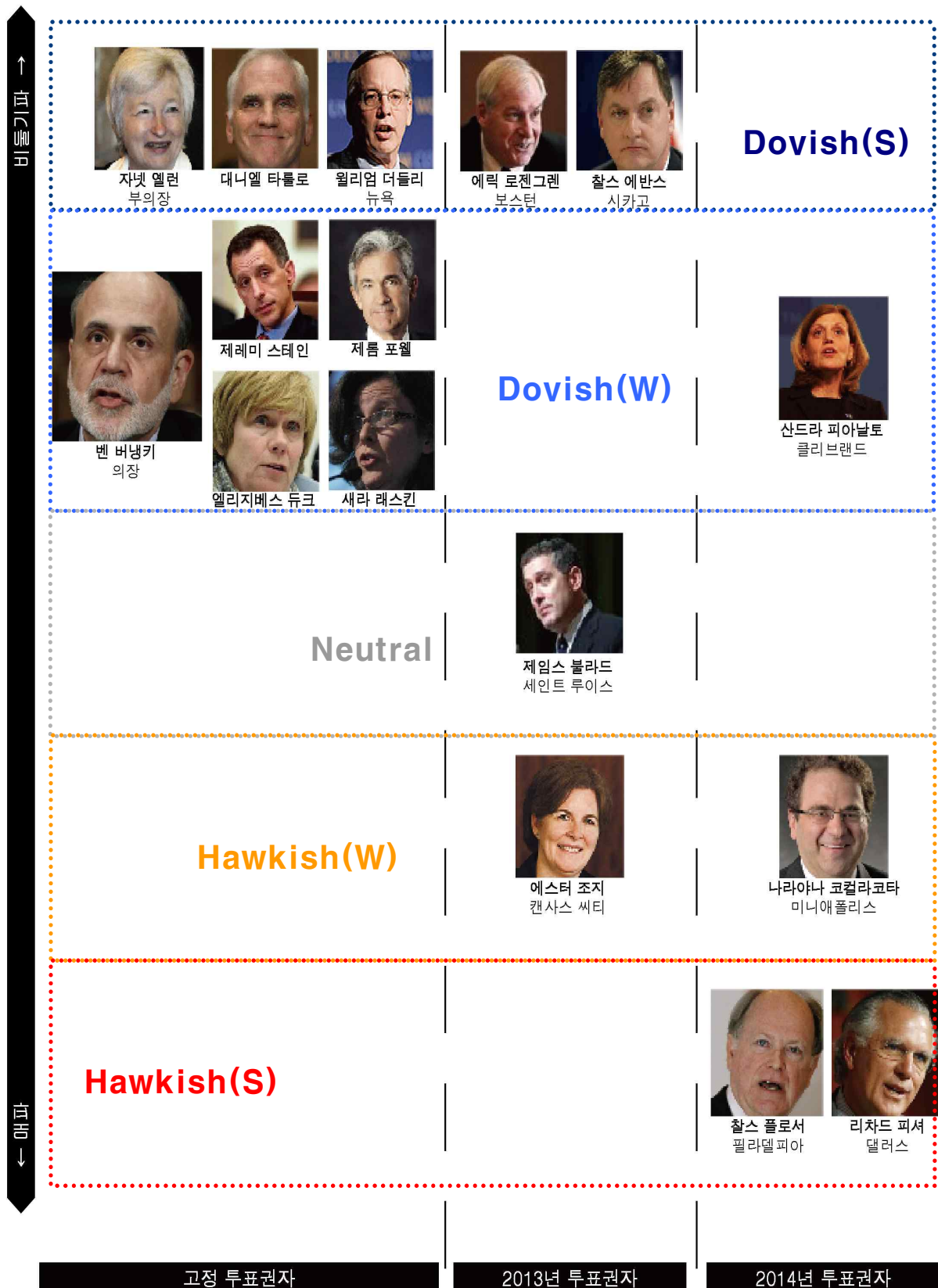
자료: 각 종 언론사

그림 23. 미국채 10년 총격발생일 일종차트: 5월 22일(버냉키 의회연설), 6월 19일(6월 FOMC), 7월 5일(6월 미국고용)



자료: Bloomberg

그림 24. 미 연준 주요인사 통화정책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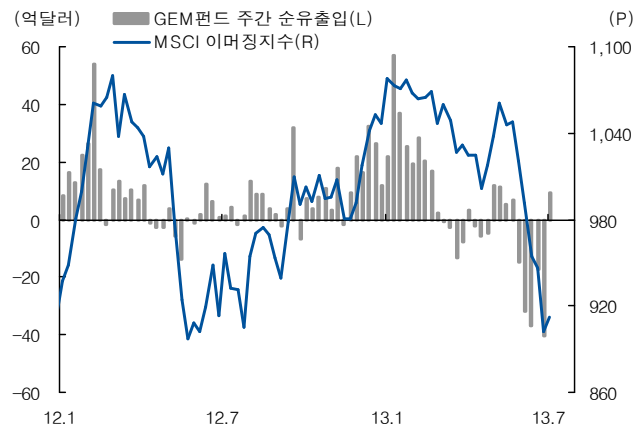


주: dovish는 완화론자, hawkish는 긴축론자이며 (W)는 약함(weak), (S)는 강함(strong)을 의미
 자료: Fe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자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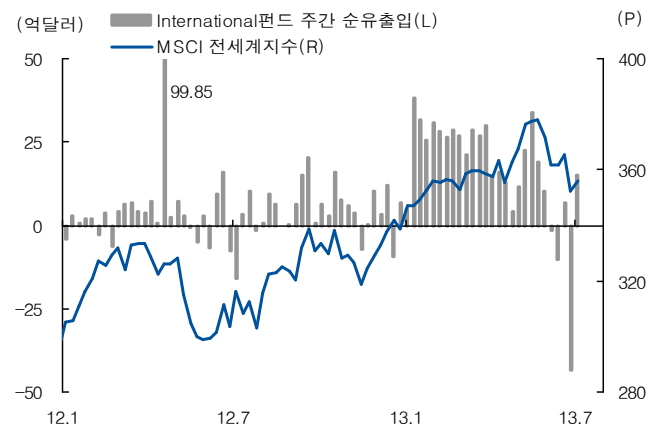
■ 글로벌 펀드 동향 – GEM펀드로 6주 만에 자금유입 나타나. International펀드로도 자금유입 전환

그림 1. 이머징마켓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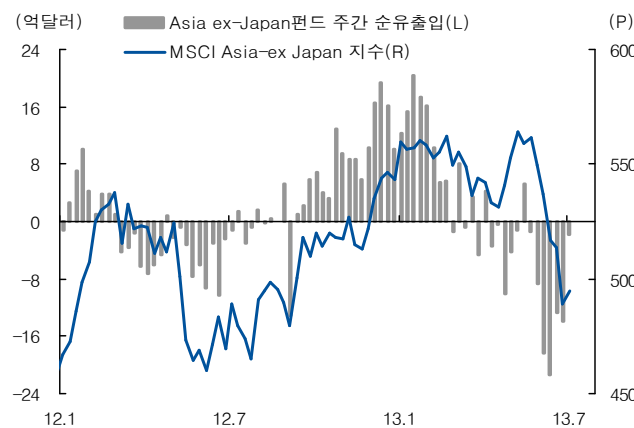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2. International 펀드(선진시장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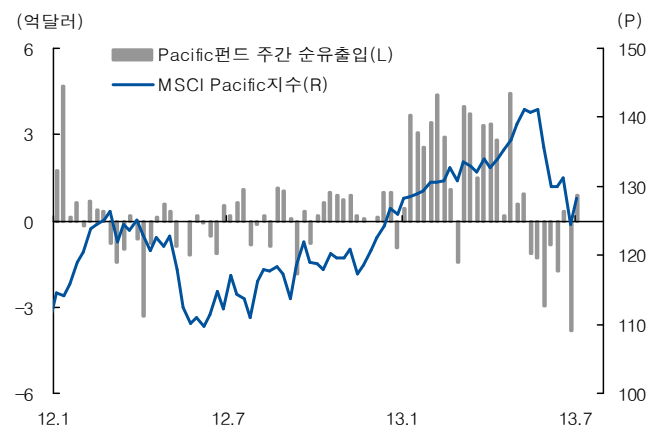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3. 일본제외 아시아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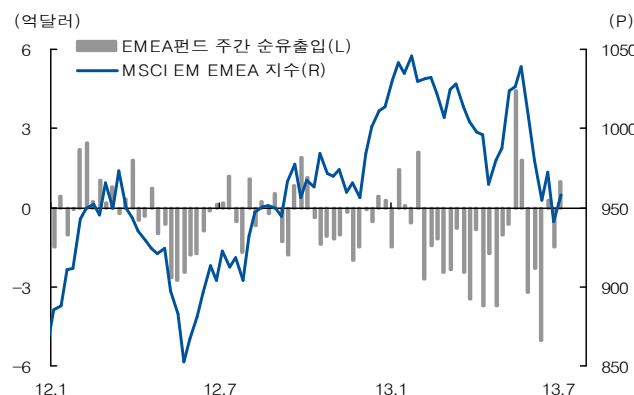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4. Pacific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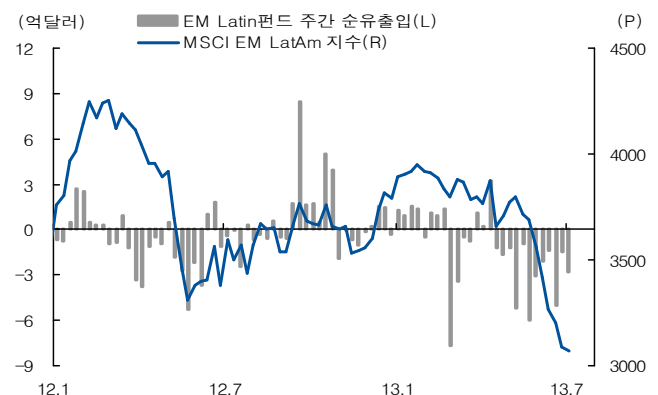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5. EMEA 펀드(Europe, Middle East, Africa)



자료: Thomson Reuters,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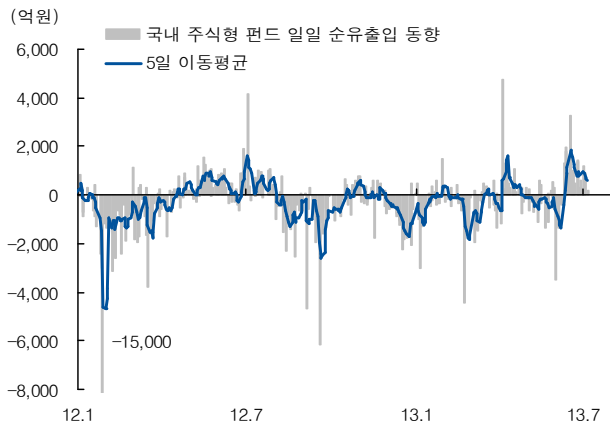
그림 6. EM Latin America 펀드



자료: Thomson Reuters,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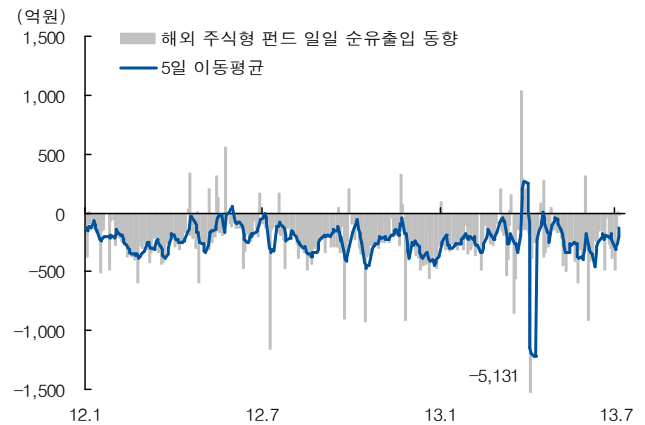
■ 국내 자금흐름 동향 –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세는 지속되는 양상

그림 7.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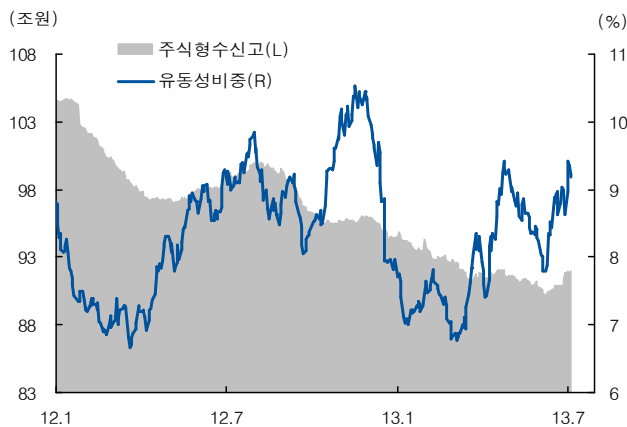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그림 8.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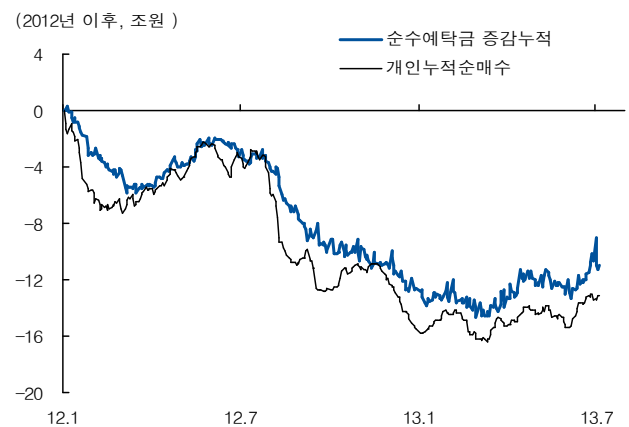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그림 9. 주식형펀드 수신고 및 유동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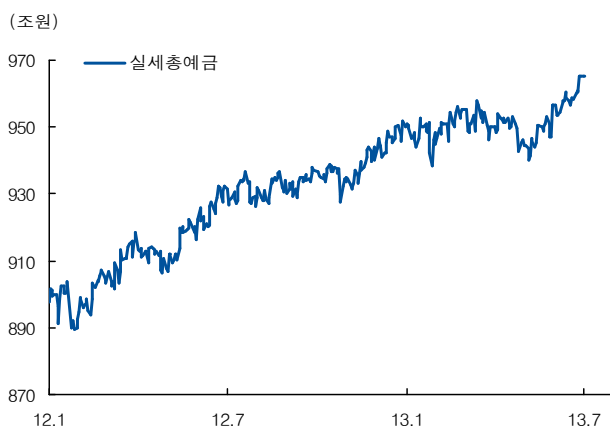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금융투자협회

그림 10. 순수예탁금 및 개인누적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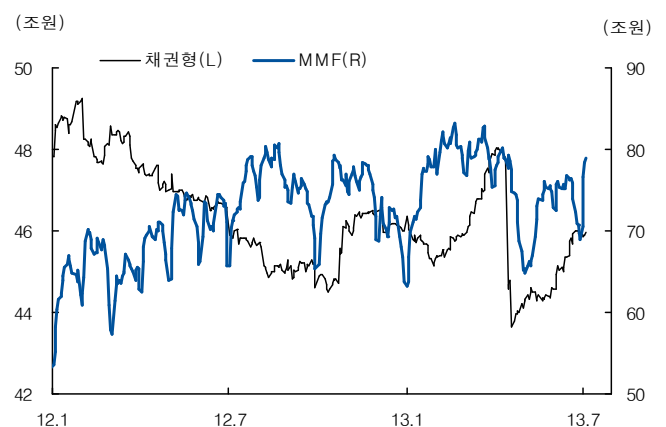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은행권 실세총예금 잔고 추이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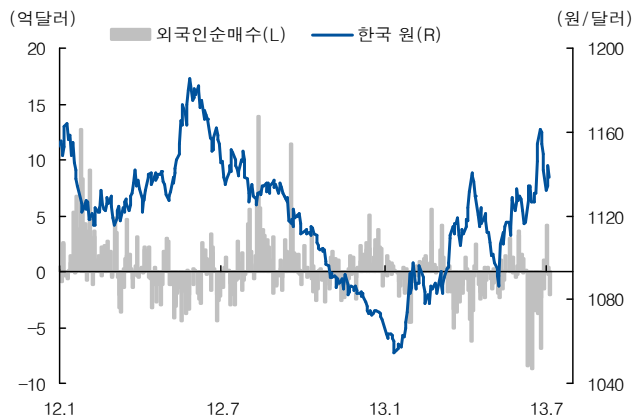
그림 12. MMF 및 채권형펀드 수신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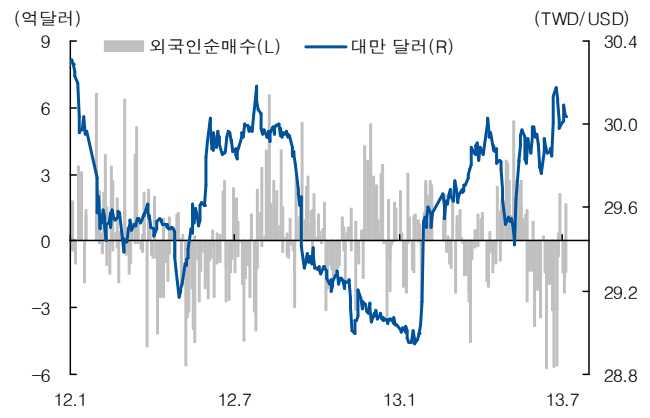
■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대부분 이머징아시아 국가에서 주 후반 외국인 매도세 완화

그림 13.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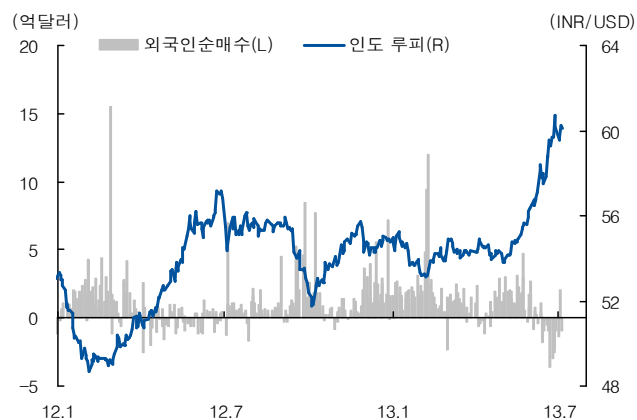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4.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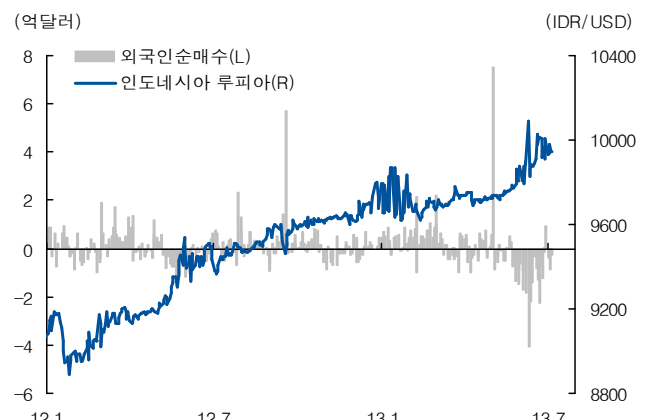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5.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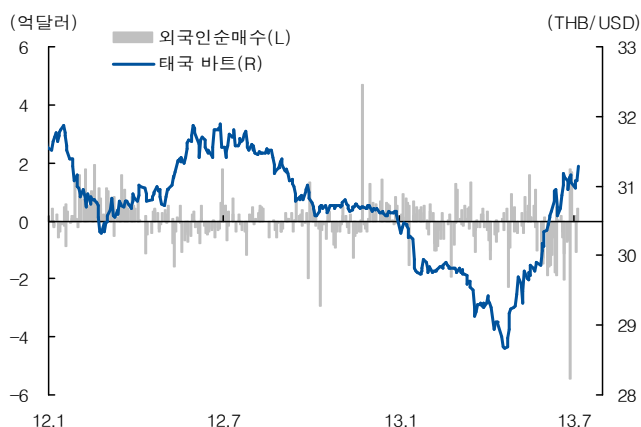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6.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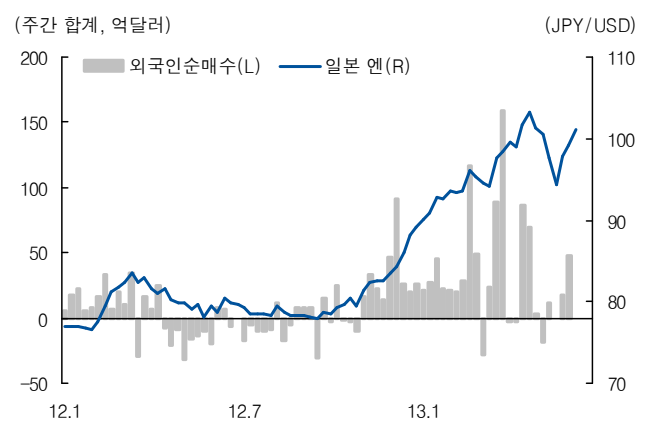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7.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태국



자료: Bloomberg

그림 18.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일본



자료: Bloomberg

음식료

백운목
02-768-4158
wm.baek@dwsec.com

음식료(F&B)

(비중확대)

2분기 고난의 시기, 3~4분기는?

- 2분기의 특이 사항은 Q(물량)와 P(가격) 모두 부진
- 이익결정변수 2분기 최악, 4분기에 최악에서 벗어날 전망
- 관심 종목은 하반기 이익 증가가 가능한 오리온과 Valuation 매력이 돋보이는 대상

2분기 이익결정변수 급락, Q의 감소 심각

음식료 업체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다 매출 둔화라는 충격에 빠졌다. 해외 비중이 높아져 국내와 해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분기는 국내, 해외 모두 부진한 최악의 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2분기 국내 매출액은 정체할 전망이다. 1분기 1~2% 증가에 이어 2분기는 쇼크 수준으로 판단된다. **2분기 부진에 큰 영향을 준 변수는 Q(물량)와 P(가격)이다.**

2분기에 Q(물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4~5월 식료품 내수 출하는 각각 3.5%, 5.1% 감소했다. 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음료품 내수 출하도 각각 1.0%, 6.3% 감소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진데다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강한 매출 정책(밀어내기 등)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대형마트 규제 여파(2012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규제), 동반성장 품목 선정, 프랜차이즈 규제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P(가격)도 매출 둔화에 가세했다. 음식료품 소비자 가격 상승은 4월 1.2%, 5월 0.5%, 6월 -0.2%를 기록했다. P의 둔화는 1) 일부 품목에 대해 인상 요인은 있었으나 물가 안정책으로 인상 시기가 미루어졌고, 2) 경기 부진으로 신제품(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높음)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3)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 가격 인상의 명분이 약했기 때문이다.

해외도 부진할 전망이다. 해외 사업이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정도인 업체는 오리온, CJ제일제당, KT&G이다. 오리온은 중국 경기 둔화와 광고/판매비 증가로, CJ제일제당은 중국의 라이신 가격 하락으로, KT&G는 중동(이란 등)의 정세 불안으로 해외에서의 이익이 감소했다.

3~4분기는?

현재 음식료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우호적인 변수는 국제 곡물가격 하락 정도이다. 환율이나 해외시장 진출은 중립 정도이다. 판매량(Q)이나 제품가격(P)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개월 이후의 이익결정변수는 현재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가격은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환율도 부정적보다는 우호적일 전망이다. 판매량도 대형 마트 이슈와 유통 구조의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감소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제품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고, 상반기에 전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폭이나마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2013년 이익결정변수의 주가에 대한 영향

외부 변수	1월	4월	현재(7월)	10월
국제 곡물가격	+	+	+	+
환율	+	-	-	Δ
해외 진출	+	Δ	Δ	Δ
판매량	Δ	-	-	Δ
제품가격	+	-	-	Δ
종합(결론)	+	-	-	Δ

주: + 긍정적 영향, Δ 중립적 영향, - 부정적 영향,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서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음식료업황은 2013년 2분기가 최악으로 판단된다. 2012년 음식료업황은 상고하저(上高下低)였다. 2012년 상반기는 이익결정변수의 긍정적 효과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낸 시기이다. 2012년 하반기는 경기 둔화로 이익이 감소했고 업황도 부진했다.

2013년에는 상저하중(上低下中)이 나타날 전망이다. 상반기는 2012년 상반기의 역기저효과(Base effect)로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수 경기와 중국 경기의 둔화가 지속될 수 있어 강한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핵심이다.**

관심 종목은 오리온(001800), 대상(001680)

현 시점에서 관심 종목은 이익 증가에서는 오리온, Valuation 매력으로는 대상이다.

오리온의 상반기 중국 이익 감소는 매출 문제보다는 광고/판촉비 증가 때문이다. 하반기 중국의 매출액은 20% 성장 가능하다. 이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오리온의 중국 광고/판촉비 집행은 2012년에 상반기 30%, 하반기 70%인데, 2013년에는 상반기 60%, 하반기 40%이다. 오리온은 왕왕(Want Want)보다 영업이익률이 낮다. 광고/판촉비 비중이 17~18%로 왕왕의 3~4%보다 높기 때문이다. 광고/판촉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다.

2014년에는 선양공장 완공 효과(매출액 700억원 추가)와 고소미 출시(2014년 500억원 추가) 효과로 2014년에도 2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서 글로벌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00원(현재주가 1,009,000원)이다.

대상의 2013~2014년 PER은 12.9배, 11.8배로 음식료업체 중 매력적이다. 식품부문은 경기 부진으로 매출 둔화가 나타나지만, 사업구조조정을 완료하여 이익은 방어할 전망이다. 전분당은 옥수수가격 하락으로 원가가 하락할 수 있어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 연결 계열사인 대상베스트코(식자재유통)의 고성장, 대상에프앤에프의 이익 개선세, PT.Miwon Indonesia의 수익성 개선 등은 대상의 기업가치를 꾸준히 높일 전망이다. 목표주가는 43,000원(현재주가 34,050원)이다. 주가 하락을 반영하여 투자의견을 Trading Buy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표 2. 오리온의 수익예상과 투자지표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1,596	1,913	2,368	2,494	2,663	3,087
영업이익 (십억원)	338	215	264	256	276	333
영업이익률 (%)	21.2	11.3	11.1	10.3	10.4	10.8
순이익 (십억원)	196	99	152	151	166	212
EPS (원)	32,836	16,660	25,413	25,351	27,757	35,540
ROE (%)	31.9	12.0	16.3	14.3	13.6	15.0
P/E (배)	11.8	40.7	43.3	39.8	36.4	28.4
P/B (배)	3.4	5.1	7.1	5.6	4.8	4.1

표 3. 대상의 수익예상과 투자지표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1,785	2,164	2,480	2,651	2,806	2,970
영업이익 (십억원)	75	109	132	142	154	166
영업이익률 (%)	4.2	5.0	5.3	5.4	5.5	5.6
순이익 (십억원)	32	56	91	96	105	116
EPS (원)	876	1,541	2,531	2,662	2,919	3,232
ROE (%)	7.0	11.2	16.3	14.9	14.2	13.7
P/E (배)	8.8	10.5	10.4	12.8	11.7	10.6
P/B (배)	0.7	1.4	1.9	2.1	1.8	1.5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류제현
02-768-4175
jay.ryu@dwsec.com

항공운송

(중립)

한 여름의 설상가상(雪上加霜)

- 아시아나항공 착륙 중 충돌사고: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측면에서センチメント 악화 예상
- 인천공항 6월 실적: 중국 여객 노선 개선되었으나, 일본 여객 및 화물 노선 부진은 지속
- 비교적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 유지

■ 아시아나항공 B777 사고: 단기センチメント 악화는 피할 수 없을 듯

지난 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의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착륙도중 충돌,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 5명은 중태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사고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보험사에 의해 대부분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년 만의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인해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그 영향과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측 실수인 경우 특히 부정적 영향이 크며, 기체 결함일 경우에도センチメント 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과거 대표적인 인명사고는 사례를 보았을 때, 최근 인명 사고는 2011년 7월 아시아나항공(화물기, 사상자 2명)과 1997년 8월 대한항공(여객기, 사상자 254명)이 있다(표 1 참조). **당시 해당 항공사의 주가는 장중 7~8% 하락하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적으로도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이는 사고보다는 부진했던 항공업 경기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공항 6월 실적: 중국 노선 위주의 여객 수요 개선되었으나 화물 부진세는 여전

6월 인천공항 국제 여객자 수는 YoY 6.1% 증가하면서 4~5월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탑승률 인디케이터(YoY 0.1%)도 전년 동기대비 개선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노선별로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의 여객자수가 YoY 12.5% 증가하였다. 미주노선 여객 수요도 YoY 6.6%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독일은 YoY 1.4% 감소하였지만, 감소세는 5월(YoY -6.8%) 대비 완화되었다. 다만, **일본 노선과 태국 노선이 각각 YoY 8.6%, YoY 3.6% 감소하며 5월대비 크게 회복하지 못하거나 악화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환승객은 YoY 11.2%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물 수요는 YoY 1.4% 감소하면서 4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운항횟수 증가율 3.1% 그치면서 탑재를 인디케이터는 4.5%p 감소세를 유지, 부진한 지표가 유지되었다. 노선별로는 일본이 하락세 (YoY -3.5%)로 반전한 반면, 독일노선은 YoY 2.9% 증가하며 5월 부진을 만회하였다. 미국(YoY 2.1%), 중국(YoY 2.1%)은 증가세는 유지하였지만 그 폭은 5월(미국과 중국 각각 YoY 10.3%, YoY 10.7%) 대비 둔화되는 부진을 시험하였다.

■ 보수적인 관점 유지: 적절한 투자시점은 3Q13 말 이후

항공업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한국 항공사의 PBR은 0.89배로 역사적으로 비교적 매력적인 국면에 놓여있다. 하지만, **1) 화물 수요 악화세 지속, 2) 일본 여객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주가의 급반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3)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는センチメント 악화를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투자 시점은 화물 경기가 반등하고 일본 여객 노선 수요 감소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3/4분기 말 이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항공사 주요 사고 원인 및 주가 흐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사고일	93-07-26 오후 4시경	11-07-28 오전 4시경	13-07-07 오전 3시경	97-08-06 새벽 1시경	99-04-15 오후 5시경
장소	전남 해남 운거산	제주 해상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괌	중국 상하이
기종	여객기 B737	화물기 B747	여객기 B777	여객기 B747	화물기 맥도넬 더글러스 MD-11
사고원인	조종사 과실 등	불명	불명	조종사 과실 등	조종사 과실 등
피해(사상자 수)	110명	2명	90여명	254명	49명
주가등락	당일(저점)	-4.7%(-7.8%)		-5.0%(-7.5%)	-1.6%(-5.3%)
	일주일	NA	-5.4%	+5.2%	-5.7%
	한달		-12.9%	-11.8%	-13.8%
KOSPI등락	당일(저점)	+0.7%(-0.1%)	-0.9%(-1.6%)	+0.65%(-0.2%)	+0.43%(-0.52%)
	일주일	-3.9%	-6.4%	+2.3%	+3.6%
	한달	-4.7%	-18.2%	-7.7%	+1.8%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Case1	항공사측 과실	
항목	내용	중요도
영향	브랜드 이미지 손상	상
	항공사 기피에 따른 여객자수 제한	중
실적	마케팅 비용 증가	중
	보험료 상승	하
기간	중기적	
Case1	제작 과실	
항목	내용	중요도
영향	B777 기피현상	중
실적	항공기 기피에 따른 여객자수 제한	하
기간	단기적	하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B777 관련 주요사고

날짜	항공사	장소	원인	사고내용	인명피해
2013년 7월	대한항공	러시아	엔진결함	비상착륙	없음
2013년 4월	대한항공	일본	화재	회항	없음
2008년 1월	브리티시 에어	영국	엔진결함	활주로에 충돌	47명 부상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항공사별 B777기 보유 현황

		국내항공사		일본항공사		중국항공사		미국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ANA	JAL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보유대수	777-200(ETOPS)	0	0	16	15	0	4	0	19
	777-200ER	18	11	11	11	0	4	8	55
	777-200LR	0	0	0	0	0	0	10	0
	777-300	4	0	7	7	0	0	0	0
	777-300ER	12	0	19	13	0	0	0	0
	777F(화물기)	3	0	0	0	0	6	0	0
합계(여객기)		37(34)	11	53	46	0	14(8)	18	74
주문대수	777-200ER	0	1	1	0	0	0	0	0
	777-300ER	4	0	0	0	0	0	0	0
	777F(화물기)	2	0	0	0	0	6	0	0
	합계(여객기)	6(4)	1	1	0	0	6(0)	0	0

자료: CAPA,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005930)

실망...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Results Comment
2013. 7. 8

(Maintain)	매수
목표주가 (원, 12M)	2,100,000
현재주가(13/07/05, 원)	1,267,000
상승여력	66%

영업이익(13F, 십억원)	39,246
Consensus 영업이익(13F, 십억원)	40,873
EPS 성장률(13F, %)	38.1
MKT EPS 성장률(13F, %)	20.5
P/E(13F, x)	6.7
MKT P/E(13F, x)	8.9
KOSPI	1,833.31
시가총액(십억원)	186,628
발행주식수(백만주)	170
유동주식비율(%)	71.2
외국인 보유비중(%)	41.3
베타(12M, 일간수익률)	1.58
52주 최저가(원)	1,091,000
52주 최고가(원)	1,584,0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7 -16.9 6.9
상대주가	-10.3 -8.0 9.2



반도체

송중호
02-768-3722
james.song@dwsec.com

장준호
02-768-3241
joonho.jang@dwsec.com

What's New: 2Q13 영업이익 9.5조원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시장 기대치 하회: 삼성전자 2Q13 잠정실적은 매출액 57조원(+8% QoQ, +20% YoY), 영업이익 9.5조원(+8% QoQ, +47% YoY, 영업이익률 16.7%)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당사 전망과는 불과 5천억원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주가 급락 과정에서 시장의センチ멘트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2분기 실적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실적 추정: 2Q 부문별 영업이익은 IM 6.4조원, 반도체 1.6조원, DP 1.1조원, CE 0.4조원으로, 특히 IM부문이 시장 기대치 대비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BestBuy 매장, 신홍시장 진출 등 마케팅 비용 증가가 이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갤럭시S3 등 기존 제품 출하 감소, 통신 보조금 축소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Q13 스마트폰 출하는 7,500만대로 추정된다. 반도체에서는 메모리는 호조인 반면, 시스템LSI는 부진한 상황이다.

Catalyst: 바닥까지 추락한 시장 기대. 3분기 실적 개선 예상 유효

하반기 실적 전망: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그러나 3Q13 영업이익은 10.7조원으로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IM 부문의 마케팅 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3Q13 스마트폰 출하량은 8,20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갤럭시S4는 2,200만대(기존 2,400만대)로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3분기말 출시되는 노트3(700만대)가 출하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4Q13 영업이익은 10.3조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실적 성장 예상: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3Q13 반도체 영업이익은 2.1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DRAM의 경우 노트3에서는 3GB LPDDR3가 채택될 전망이다. NAND의 경우에는 특히 3bit MLC 양산 호조를 바탕으로 한 SSD 시장 지배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옥타코어 채택 부진으로 시스템LSI의 실적 개선은 쉽지 않지만, 파운드리 물량 증가 등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할만한 Valuation! 목표주가 2,100,000원 유지

비중 확대 의견 유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Rock Bottom으로 예상했던 130만원 이하로 다시 하락했다. 현 Valuation은 13F P/B 1.44배, 12개월 Forward P/B 1.27배, 13F P/E 6.7배, 14F P/E 5.6배 수준이다. 2분기 실적은 분명 실망스럽지만, 현 Valuation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만하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

규모의 경제 확대에 주목: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부분이다. 2Q13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3,000만대 추정)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154,630	165,002	201,104	236,359	293,617	332,445
영업이익 (십억원)	17,297	15,644	29,049	39,246	46,035	52,972
영업이익률 (%)	11.2	9.5	14.4	16.6	15.7	15.9
순이익 (십억원)	15,799	13,383	23,185	32,027	38,513	44,613
EPS (원)	92,863	78,660	136,278	188,245	226,368	262,227
ROE (%)	20.4	14.7	21.7	24.3	23.5	22.0
P/E (배)	10.2	13.5	11.2	6.7	5.6	4.8
P/B (배)	1.8	1.8	2.2	1.4	1.2	1.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삼성전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3Q13 이후 영업이익 10조원 상회 예상. 다시 한번 날아보자!

3Q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삼성전자의 3Q13 실적은 매출액 62.6조원(+ 9.7% QoQ, + 20.0% YoY), 영업이익 10.7조원(+ 12.5% QoQ, + 32.8% YoY, 영업이익률 17.1%)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는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6.8조원(2Q 6.4조원)으로 성장하고, 반도체 영업이익 역시 2.1조원(2Q 1.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분기 스마트폰 출하는 8,200만대(기존 8,400만대)로 가정하였고, 갤럭시S4 출하는 2,200만대(기존 2,400만대), 노트3 출하는 700만대로 예상한다.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4Q13 실적은 매출액 63.8조원, 영업이익 10.3조원으로 3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3분기말 노트3 출시 이후 특별한 신제품 출시가 없고, 애플의 iPhone5S 등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4Q13 IM 부문 영업이익은 6.4조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36.4조원(+ 17.5% YoY), 영업이익 39.3조원(+ 35.1% YoY, 영업이익률 16.6%)로 예상된다.

표 1. 삼성전자의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십억원, %)

	1Q12	2Q12	3Q12	4Q12	1Q13	2Q13P	3Q13F	4Q13F	2011	2012	2013F	2014F
매출액	45,271	47,597	52,177	56,059	52,870	57,061	62,595	63,833	165,002	201,104	236,359	293,617
% QoQ	-4.3	5.1	9.6	7.4	-5.7	7.9	9.7	2.0				
% YoY	22.4	20.7	26.4	18.5	16.8	19.9	20.0	13.9	6.7	21.9	17.5	24.2
CE 부문	11,500	12,830	12,220	14,560	11,240	11,340	12,764	13,282	47,020	51,110	48,626	54,594
IM 부문	22,470	23,360	29,300	30,710	32,820	34,786	37,528	38,071	67,440	105,840	143,205	188,892
DS 부문-반도체	7,980	8,600	8,720	9,590	8,580	9,297	10,442	10,475	36,990	34,890	38,795	38,634
DS 부문-DP	8,540	8,250	8,460	7,750	7,110	7,979	8,430	8,705	29,230	33,000	32,224	45,945
매출원가	30,138	29,971	31,990	34,553	31,380	33,951	36,931	38,300	112,145	126,652	140,562	176,170
매출 총이익	15,132	17,626	20,188	21,506	21,490	23,110	25,664	25,533	52,857	74,452	95,797	117,447
매출총이익률	33.4	37.0	38.7	38.4	40.6	40.5	41.0	40.0	32.0	37.0	40.5	40.0
판매비	9,443	11,232	12,194	12,533	12,710	13,596	14,961	15,284	37,402	45,402	56,551	71,411
매출 비중	20.9	23.6	23.4	22.4	24.0	23.8	23.9	23.9	22.7	22.6	23.9	24.3
영업이익	5,690	6,460	8,060	8,840	8,780	9,513	10,703	10,249	15,644	29,050	39,246	46,035
% QoQ	18.9	13.5	24.8	9.7	-0.7	8.4	12.5	-4.2				
% YoY	103.5	71.2	87.8	84.8	54.3	47.3	32.8	15.9	-5.9	85.7	35.1	17.3
CE 부문	500	730	400	700	230	439	535	483	1,550	2,330	1,687	2,064
IM 부문	4,180	4,130	5,630	5,470	6,510	6,352	6,816	6,376	8,130	19,410	26,054	28,147
DS 부문-반도체	700	1,030	1,150	1,420	1,070	1,616	2,102	2,036	7,330	4,300	6,824	9,304
DS 부문-DP	280	750	1,090	1,110	770	1,057	1,200	1,204	-750	3,230	4,231	6,521
영업이익률	12.6	13.6	15.4	15.8	16.6	16.7	17.1	16.1	9.5	14.4	16.6	15.7
CE 부문	4.3	5.7	3.3	4.8	2.0	3.9	4.2	3.6	3.3	4.6	3.5	3.8
IM 부문	18.6	17.7	19.2	17.8	19.8	18.3	18.2	16.7	12.1	18.3	18.2	14.9
DS 부문-반도체	8.8	12.0	13.2	14.8	12.5	17.4	20.1	19.4	19.8	12.3	17.6	24.1
DS 부문-DP	3.3	9.1	12.9	14.3	10.8	13.2	14.2	13.8	-2.6	9.8	13.1	14.2
순이익	4,861	5,049	6,425	6,851	6,963	7,788	8,645	8,631	13,383	23,185	32,027	38,513
% QoQ	24.3	3.9	27.2	6.6	1.6	11.9	11.0	-0.2				
% YoY	79.1	46.1	94.7	75.2	43.2	54.3	34.5	26.0	-15.3	73.2	38.1	20.3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자료: 삼성전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표 2. 삼성전자 2013년 2분기 예비 실적 발표

(십억원, %, %p)

	2Q12	1Q13	2Q13P			Growth rate	
			발표치	대우 예상치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47.6	52.9	57.0	55.0	59.2	19.7	7.8
영업이익	6.5	8.8	9.5	10.0	10.2	46.2	8.0
영업이익률	13.7	16.6	16.7	18.2	17.2	3.0	0.0

자료: 삼성전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025.4 / 5일 -1264.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470.6 / 5일 1821.5)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전기가스	442.9	370.5	전기전자	-2,528.4	-2,985.6	철강금속	80.1	207.8	전기전자	-1,280.4	635.7
운수장비	372.4	-1,087.3	운수창고	-74.9	-229.8	통신업	75.6	64.4	금융업	-182.4	-471.3
화학	269.0	1,417.5	보험업	-51.1	505.2	건설업	31.5	-4.4	운수장비	-95.7	2,670.6
통신업	142.9	-66.0	섬유 의복	-9.4	4.8	서비스업	13.3	-58.6	화학	-70.9	-709.4
금융업	121.2	502.8	비금속	-2.2	-10.0	운수창고	12.7	194.9	전기가스	-57.8	-95.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한국전력	306.1	296.3	삼성전자	-1,683.7	-669.0	기아차	162.7	581.5	삼성전자	-1,318.2	51.6
현대차	277.6	-688.4	KODEX레버리지	-363.5	781.8	LG유플러스	157.5	243.5	현대차	-367.7	1,591.6
KODEX 200	234.8	-471.4	LG전자	-232.6	-436.2	삼성중공업	85.0	261.0	KODEX 200	-280.7	612.9
KODEX 인버스	229.2	-408.9	삼성전기	-226.3	-496.8	POSCO	83.3	145.6	하나금융지주	-131.5	-163.7
하나금융지주	132.6	-220.4	SK하이닉스	-199.2	-1,866.2	LG이노텍	56.1	-24.4	삼성생명	-83.4	-77.8
한국가스공사	128.7	66.4	삼성엔지니어링	-96.9	87.1	코웨이	55.4	145.0	KODEX레버리지	-82.5	60.5
SK텔레콤	111.2	67.4	LG디스플레이	-78.6	-86.3	현대차2우B	54.1	582.8	LG화학	-76.9	-494.7
롯데케미칼	107.8	270.9	현대모비스	-74.0	367.3	엔씨소프트	53.6	145.2	SK텔레콤	-60.8	-48.9
대우조선해양	97.1	47.7	대덕GDS	-51.6	-7.7	신한지주	39.1	132.3	SK이노베이션	-58.2	-47.5
엔씨소프트	94.3	209.0	현대상선	-50.3	-103.8	삼성전자우	38.8	-108.9	삼성SDI	-56.2	-184.7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29.3 / 5일 -290.2)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80.0 / 5일 252.4)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기타	61.0	47.2	IT부품	-206.3	-225.8	통신방송	26.1	83.9	IT부품	-115.3	-77.3
디지털컨텐츠	38.6	-30.0	반도체	-109.1	-242.1	방송서비스	25.2	72.2	반도체	-38.6	99.6
오락.문화	37.9	126.1	의료.정밀기기	-59.3	-49.6	제약	21.9	197.0	소프트웨어	-21.6	82.5
통신방송	33.8	52.1	기계.장비	-29.1	-19.4	오락.문화	11.3	-31.4	통신장비	-21.4	-18.3
인터넷	21.6	20.0	음식료.담배	-25.7	22.5	기타	9.4	-17.8	기계.장비	-19.3	-56.9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포스코 ICT	60.0	6.4	파트론	-57.3	-18.8	셀트리온	29.6	277.9	파트론	-72.1	-50.3
태광	22.3	38.3	네패스	-55.6	-50.1	CJ오쇼핑	23.7	43.5	아모텍	-13.5	-2.5
게임빌	21.6	-100.0	골프존	-48.5	-95.3	미디어플렉스	16.0	3.4	에스엠	-12.4	-38.4
SK브로드밴드	19.9	72.3	KH바텍	-36.4	-52.5	포스코 ICT	13.7	-4.9	에스에프에이	-12.1	-19.6
엑토스소프트	19.2	26.7	세코닉스	-34.6	-9.2	파라다이스	13.0	16.7	루멘스	-11.9	7.8
파라다이스	17.4	12.3	이지바이오	-21.0	-17.6	다음	12.4	18.8	네패스	-10.5	-3.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9	19.0	이오텍	-20.6	-10.4	KH바텍	11.6	19.9	이라이콤	-8.3	8.8
CJ E&M	14.6	-3.6	옵트론텍	-16.1	-17.5	인터플렉스	5.9	31.8	케이엠더블유	-7.2	1.8
코텍	14.5	5.8	아모텍	-14.2	-29.4	서울반도체	5.6	102.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5	-8.9
다음	11.9	4.6	에스에프에이	-12.1	5.3	테라리소스	5.1	-2.5	AP시스템	-6.4	8.0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한국전력	10,100.7	삼성전자	-63,217.3	기아차	6,384.7	삼성전자	-70,271.3
현대차	9,811.4	삼성전기	-9,006.5	롯데케미칼	6,072.5	삼성전기	-12,618.0
대우조선해양	8,525.6	SK하이닉스	-7,161.2	이마트	5,906.5	SK하이닉스	-8,472.1
LG화학	7,289.3	LG전자	-5,597.1	한국가스공사	5,701.4	LG전자	-7,530.1
SK텔레콤	6,272.3	삼성엔지니어링	-3,949.0	LG화학	5,699.1	현대모비스	-4,953.7
KODEX 200	5,663.0	SK이노베이션	-3,850.8	신세계	5,433.1	삼성전자우	-2,946.3
하나금융지주	5,463.3	현대모비스	-2,872.2	한국전력	4,887.1	삼성화재	-2,404.1
엔씨소프트	4,617.8	CJ	-2,853.7	CJ	4,348.1	아이마켓코리아	-2,119.6
삼성중공업	4,013.9	이마트	-2,496.4	현대차	3,812.4	한국타이어	-2,115.5
현대백화점	2,981.3	현대차2우B	-2,366.3	POSCO	3,756.5	LG	-2,114.9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레버리지	3,181.8	현대상선	-5,633.6	한국전력	7,957.8	삼성전자	-22,924.9
삼성전기	1,341.4	삼성전자	-4,189.1	LG화학	4,024.3	LG디스플레이	-8,890.5
현대모비스	1,156.7	대우조선해양	-3,471.3	SK이노베이션	3,483.2	SK하이닉스	-6,622.6
SK하이닉스	963.2	POSCO	-1,818.3	하나금융지주	3,468.0	LG전자	-5,854.1
현대건설	938.1	TIGER 200	-1,137.9	KB금융	3,082.6	대덕GDS	-4,076.9
삼성SDI	859.0	코오롱인더	-572.5	TIGER 200	2,836.9	현대모비스	-3,827.0
하나금융지주	764.0	LG전자	-553.0	삼성SDI	2,608.3	코웨이	-3,483.7
현대차	753.1	삼성중공업	-440.6	KT	2,331.5	삼성전기	-3,318.0
SK이노베이션	693.5	삼성생명	-426.1	강원랜드	2,202.3	LG이노텍	-2,679.2
OCI	687.2	현대제철	-410.6	현대차	2,123.9	LG유플러스	-2,176.9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5,361.1	9,428.4	삼성전자	131,819.8	168,370.5
기아차	16,268.4	5,861.8	KODEX 레버리지	8,251.5	36,352.1
삼성중공업	8,498.2	4,812.8	삼성전기	1,461.8	22,631.6
현대하이스코	1,043.5	4,570.3	SK하이닉스	3,616.4	19,916.3
이마트	2,233.2	3,603.2	현대모비스	3,482.4	7,398.0
넥센타이어	937.0	2,805.1	CJ CGV	583.8	4,982.7
현대제철	1,927.9	2,180.2	자화전자	1,301.0	4,093.5
현대위아	1,922.8	1,915.6	현대중공업	456.4	3,025.2
신한지주	3,911.1	1,018.8	삼성물산	3,006.4	1,431.7
아모레퍼시픽	2,849.1	376.0	삼성생명	8,342.9	1,360.5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포스코 ICT	2,440.4	골프존	-1,341.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494.5	파트론	-5,768.7
씨티씨바이오	1,464.7	네패스	-1,246.0	엑토즈소프트	1,350.7	세코닉스	-3,525.5
솔브레인	1,125.3	아모텍	-1,215.7	태광	903.3	네패스	-2,974.7
서울반도체	982.1	KH버텍	-1,174.4	코텍	811.4	이엠텍	-2,234.9
파트론	827.6	에스에프에이	-896.6	SK브로드밴드	767.2	이지바이오	-1,856.5
SK브로드밴드	743.8	옵트론텍	-766.2	포스코 ICT	658.5	인터파크	-1,141.3
세코닉스	659.8	옵니시스템	-723.3	에스엠	504.2	씨티씨바이오	-751.9
청담러닝	604.9	서암기계공업	-577.8	나노스	272.5	이녹스	-734.1
태광	567.0	지디	-520.5	ITX시큐리티	253.3	휴온스	-688.6
비에이치	503.1	평화정공	-504.7	CJ E&M	236.0	옵트론텍	-637.8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모두투어	341.3	하이룩코리아	-260.7	포스코 ICT	1,509.2	골프존	-1,842.5
CJ E&M	338.8	덕산하이메탈	-225.5	다음	1,068.1	매일유업	-861.6
파라다이스	285.6	KH버텍	-153.2	게임빌	909.4	씨티씨바이오	-846.6
GS홈쇼핑	207.4	옵트론텍	-129.5	원스테크넷	584.7	네패스	-821.0
휴온스	206.1	에스에프에이	-129.1	파라다이스	404.6	CJ오쇼핑	-705.9
메디톡스	202.9	대한약품	-105.4	한국사이버결제	314.0	서울반도체	-282.3
케이엠더블유	201.2	동양이엔피	-103.2	SK브로드밴드	262.2	세코닉스	-275.9
CJ오쇼핑	199.4	에스엠	-95.1	테라세미콘	255.1	잉크테크	-274.1
매일유업	197.3	플랜티넷	-91.0	메디톡스	240.5	코오롱생명과학	-273.8
삼천리자전거	190.9	리드코프	-64.0	포스코캠텍	237.5	휴온스	-253.6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포스코 ICT	1,373.9	6,000.6	파트론	7,209.5	5,728.4
파라다이스	1,304.0	1,743.3	네패스	1,051.7	5,563.3
CJ E&M	18.9	1,457.8	골프존	357.8	4,851.3
다음	1,237.6	1,187.4	이지바이오	16.8	2,102.8
GS홈쇼핑	151.7	875.9	옵트론텍	101.0	1,608.0
모두투어	149.5	756.2	아모텍	1,345.8	1,419.6
엔텔스	55.3	675.3	에스에프에이	1,211.1	1,206.1
솔브레인	185.9	659.8	지디	166.5	1,123.2
아이센스	33.5	526.1	이녹스	407.2	1,084.1
평화정공	273.8	173.7	로만손	441.7	1,083.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PI 주간 주체별 동향 (기간: 2013년 7월 1일 ~ 7월 5일)

(단위: 억원)

일자	KOSPI	투신	은행	보험	기타금융	금융투자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13. 7. 1	1855.73 (-7.59)	-202.2	15.6	-590.3	-23.0	-490.2	-656.5	-445.0	712.6	387.7
13. 7. 2	1855.02 (-0.71)	-26.9	33.8	-291.9	38.7	778.0	196.3	483.0	-607.4	-53.6
13. 7. 3	1824.66 (-30.36)	-55.8	-49.5	-322.8	1.7	-187.0	-335.2	-2353.2	2706.0	-31.9
13. 7. 4	1839.14 (+14.48)	-56.6	-86.2	138.2	33.5	248.8	779.9	-780.7	14.6	-19.8
13. 7. 5	1833.31 (-5.83)	-480.2	-69.9	-110.5	12.0	206.7	-1025.5	-1470.7	2424.0	39.1
합계		-821.7	-156.2	-1177.3	62.9	556.3	-1041.0	-4566.6	5249.8	321.5
(13. 6. 24 ~ 13. 6. 28)		2558.9	-1190.4	-2702.9	-492.9	-161.6	1324.6	115.0	-1682.2	198.4

KOSPI 주간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20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SDI	653.5	SK하이닉스	1762.2	SK하이닉스	692.7	삼성전자	2347.3
LG화학	648.5	삼성전자	1617.2	현대차2우B	574.4	LG화학	437.9
한국전력	560.1	삼성전기	715.1	KODEX 200	388.4	KB금융	426.0
삼성생명	326.8	LG전자	554.0	기아차	348.7	하나금융지주	411.6
엔씨소프트	307.6	KODEX 레버리지	490.6	LG유플러스	323.4	현대모비스	308.6
NHN	276.8	현대차2우B	465.5	삼성중공업	183.5	NHN	272.5
SK텔레콤	246.1	KODEX 200	412.7	코웨이	167.1	SK텔레콤	221.3
SK이노베이션	220.1	LG이노텍	189.1	엔씨소프트	152.3	삼성SDI	215.4
하나금융지주	191.5	대림산업	182.4	POSCO	135.6	삼성전기	206.1
한국가스공사	180.2	POSCO	165.2	오리온	121.9	삼성생명	205.1
롯데케미칼	180.2	기아차	161.0	삼성증권	95.3	삼성전자우	168.1
신세계	179.3	현대상선	148.6	현대글로벌비스	87.5	한국전력	161.8
이마트	178.8	코웨이	131.9	현대차	85.5	LG디스플레이	158.3
삼성물산	165.2	녹십자	126.5	삼성화재	83.3	삼성카드	153.2
삼성카드	144.4	현대차	124.1	LG	80.9	강원랜드	148.9
우리금융	125.8	현대글로벌비스	116.9	에스원	66.7	신세계	148.3
대우조선해양	123.7	세아제강	114.0	현대상선	64.0	현대중공업	145.1
종근당	121.6	LG상사	112.4	스카이라이프	63.0	KT	129.5
삼성테크윈	118.7	LG	101.3	한국항공우주	57.0	SK이노베이션	127.4
현대하이스코	108.8	현대제철	100.7	GS리테일	51.4	동아에스티	125.0

KOSDAQ 주간 주체별 동향 (기간: 2013년 7월 1일 ~ 7월 5일)

(단위: 억원)

일자	KOSDAQ	투신	은행	보험	기타금융	금융투자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13. 7. 1	527.81 (+8.75)	-50.5	2.7	82.7	-15.8	-61.7	-123.5	170.0	-13.1	-34.3
13. 7. 2	526.92 (-0.89)	-104.7	34.8	39.9	-11.9	29.6	21.1	13.6	-2.2	-12.6
13. 7. 3	521.31 (-5.61)	8.7	17.8	59.3	-6.6	-9.8	40.5	-2.4	-41.9	7.4
13. 7. 4	525.22 (+3.91)	-48.3	-1.3	7.5	-11.2	-32.8	-268.0	248.0	-49.2	77.7
13. 7. 5	525.40 (+0.18)	24.8	19.8	17.2	-5.9	-60.9	-229.4	-180.1	450.4	-39.9
합계		-170.0	73.8	206.6	-51.4	-135.6	-559.3	249.1	344.0	-1.7
(13. 6. 24 ~ 13. 6. 28)		278.2	-68.3	35.0	-98.5	-171.5	-27.2	-179.1	187.5	27.0

KOSDAQ 주간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20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브로드밴드	80.9	골프존	139.4	셀트리온	285.1	파트론	74.1
포스코 ICT	61.3	네패스	109.7	서울반도체	114.0	에스엠	55.1
태광	60.2	KH바텍	89.1	성광벤드	79.4	에스에프에이	32.3
셀트리온	57.2	서울반도체	79.3	CJ오쇼핑	55.6	컴투스	31.1
에스엠	48.7	파트론	75.0	게임빌	53.0	골프존	25.6
모두투어	46.4	엑세스바이오(Reg.S)	64.6	다음	51.4	태광	24.0
엑토스소프트	38.5	원익IPS	54.0	인터플렉스	46.5	비아트론	19.3
휴맥스	33.8	세코닉스	49.7	파라다이스	41.9	시그네텍스	17.9
케이엠더블유	30.3	성광벤드	45.0	인프라웨어	39.3	리홈쿠첸	17.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0.3	게임빌	40.9	GS홈쇼핑	36.3	씨티씨바이오	16.9
조이맥스	25.7	유진테크	34.0	KH바텍	30.0	아이센스	16.3
녹십자셀	24.3	이지바이오	33.9	유진테크	28.4	엑세스바이오(Reg.S)	15.4
코텍	23.4	이엠텍	33.8	이지바이오	19.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4.8
CJ E&M	21.3	아모텍	32.7	미디어플렉스	19.6	평화정공	14.4
KG모빌리언스	19.7	씨젠	32.2	솔브레인	19.1	젬백스	12.3
테라세미콘	19.1	지디	30.3	원익IPS	18.6	메디톡스	11.8
파라다이스	18.8	제이콘텐트리	28.1	이오테크닉스	15.7	다날	11.6
엔텔스	18.3	로만손	28.0	동양시멘트	13.6	우전앤한단	11.2
한국사이버결제	14.6	인터파크	24.4	KG이니시스	13.5	디스플레이텍	11.0
코나아이	14.5	케이피에프	24.0	모두투어	13.1	아모텍	10.9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9	1312	1403	KSPH9HCS
기 준 가 격	238.56	239.30	240.70	239.80	1.40
시 가	239.72	241.25	242.00	239.80	1.40
고 가	241.12	242.15	243.40	239.80	1.45
저 가	236.56	237.35	238.80	239.80	1.40
종 가	237.28	239.15	240.35	239.80	1.40
전 일 대 비	-1.28	-0.15	-0.35	-	-
이 른 가 격	-	238.50	240.10	238.97	1.60
총 약 정 수 량 *	75,935	247,302	95	-	572
총 약 정 금 액 **	3,141,736	29,602,870	11,435	-	137,424
미 결 제 약 정	-	116967 (3470)	1795 (349)	388 (0)	-
배 당 지 수 ***	2.69% (CD금리)	0.00	0.00	2.71	-
반 응 배 수		1.05	1.01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818			
전 일 대 비		-0.193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9HCS : 9월물과 12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 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101,741	83,192	54,260	700	2,676	732	3,820	274
	매 도	107,205	80,385	51,557	724	2,664	664	3,881	318
	비 중	42.2%	33.1%	21.4%	0.3%	1.1%	0.3%	1.6%	0.1%
순 매 수 누 적	전 일	-5,464	2,807	2,703	-24	12	68	-61	-44
	누 적	-10,272	4,256	1,225	-1,195	6,698	142	-511	-343
매 매 편 향 강 도		-2.62%	1.72%	2.55%	-1.69%	0.22%	4.87%	-0.79%	-7.43%

주: 누적은 지난 쿼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 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100	-0.42%	17	406	0.00%	NAV (ETF-NAV)%	23,750 23,765
KODEX200	-70	-0.29%	4,313	102,753	5.87%		0.13% 0.02%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1% 0.01%
종가/100	237.80	237.70	238.13	239.15	238.23	설정주수	50 5000
eff.delta	0.78	0.55	0.23	0.12	0.24	환매주수	900 400
diff/basis	0.22%	0.18%	0.36%	1.87	0.95	상장주수	16000 188400

주 1: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 표	0.173	콜 평균	0.185	풋 평균	0.162	역사적 (5일)	14.4	역사적 (20일)	19.3
내 재 변 동 성									
월 물 행 사 가 격		1307					1308		
		242.5	240.0	237.5	235.0	232.5	240.0	237.5	235.0
Call	가 격	0.70	1.44	2.65	4.35	6.35	4.40	5.50	6.90
	전 일 대 비	-0.05	-0.13	-0.19	-0.15	-0.15	0.00	-0.20	-0.25
	내 재 변 동 성	18.50	19.20	20.60	23.00	25.80	18.30	18.10	18.30
	거 래 량	430,693	309,850	127,115	15,772	3,534	1,201	612	306
	미 결 제	32,670	21,930	11,534	8,648	4,195	1,413	717	521
Put	가 격	4.95	3.25	1.92	1.07	0.55	6.10	4.70	3.70
	전 일 대 비	0.25	0.20	0.12	0.09	0.04	0.45	0.20	0.25
	내 재 변 동 성	10.40	12.40	14.30	15.70	16.80	16.90	16.70	17.20
	거 래 량	19,541	112,562	296,281	345,475	475,505	431	880	1,856
	미 결 제	11,860	18,389	20,168	27,812	36,967	1,207	1,573	1,660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 국 인	개 인	증 권	보 험	투 신	은 행	기 타 법 인	국 가
	매 수	1,029,325	587,643	493,662	0	402	565	16,554	396
	매 도	1,033,197	583,704	494,908	0	398	198	15,831	332
	비 중	48.4%	27.5%	23.2%	0.0%	0.0%	0.0%	0.8%	0.0%
순 매 수 누 적	전 일	-3,872	3,939	-1,246	0	4	367	723	64
	누 적	6,077	92,955	-96,561	0	-855	-259	-1,252	-96
Put		외 국 인	개 인	증 권	보 험	투 신	은 행	기 타 법 인	국 가
	매 수	1,161,341	608,985	409,464	0	1,063	1,155	499	16,575
	매 도	1,167,549	617,073	395,848	0	1,041	406	377	16,788
	비 중	53.0%	27.9%	18.3%	0.0%	0.0%	0.0%	0.0%	0.8%
순 매 수 누 적	전 일	-6,208	-8,088	13,616	0	22	749	122	-213
	누 적	11,322	9,119	-16,323	0	-28	123	-1	-4,212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 식		주 가지 수 선 물		주 가지 수 CALL 옵션		주 가지 수 PUT 옵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매 도	매 수
차 익 거 래 잔 고 (백 만 원)	최 근 월 물	5,022,654	8,534,383	8,623,820	5,023,964	-	-	-	-
	기 타	-	-	-	-	-	-	-	-
	합 계	5,022,654	8,534,383	8,623,820	5,023,964	0	0	0	0
		프 로 그 램 매 도				프 로 그 램 매 수			
		주 식 거 래 량		주 식 거 래 대 금		주 식 거 래 량		주 식 거 래 대 금	
		수 량	비 율 (%)	금 액	비 율 (%)	수 량	비 율 (%)	금 액	비 율 (%)
프 로 그 램 매 매 동 향 (백 만 원)	차 익	292	0.10	18,088	0.48	329	0.12	20,763	0.56
	비 차 익	13,443	4.78	542,751	14.55	14,523	5.16	525,020	14.08
	합 계	13,736	4.88	560,839	15.04	14,852	5.28	545,784	14.63
베 이 시 스 수 준		1.375	1.275	1.175	1.075	0.975	0.875	0.775	0.675
차 익 성 순 매 수		465	226	754	-423	-60	178	-654	544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7/05 (금)	07/04 (목)	07/03 (수)	07/02 (화)	07/01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833.31	1,839.14	1,824.66	1,855.02	1,855.73
	이동평균	20일	1,857.48	1,862.01	1,868.01	1,876.25	1,882.98
		60일	1,923.99	1,925.44	1,926.77	1,928.48	1,930.22
		120일	1,951.50	1,952.86	1,954.26	1,955.65	1,956.84
	이격도	20일	98.70	98.77	97.68	98.87	98.55
		60일	95.29	95.52	94.70	96.19	96.14
	거래대금(억원)		37,786.0	31,579.4	37,737.9	38,958.1	30,378.6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0.35	0.30	0.36	0.36	0.28
	투자심리도		40	40	30	30	40
	ADR		83.32	80.80	80.44	77.38	73.21
	이동평균	20일	75.95	76.27	76.98	78.05	79.60
	VR		42.77	53.41	41.16	45.75	47.62
코스닥시장			07/05 (금)	07/04 (목)	07/03 (수)	07/02 (화)	07/01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25.40	525.22	521.31	526.92	527.81
	이동평균	20일	524.76	525.28	526.47	528.48	530.61
		60일	550.56	550.61	550.67	551.10	551.57
		120일	539.32	539.24	539.15	539.07	538.92
	이격도	20일	100.12	99.99	99.02	99.70	99.47
		60일	95.43	95.39	94.67	95.61	95.69
	거래대금(억원)		16,427.3	16,543.5	15,911.3	17,770.6	12,906.6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1.38	1.39	1.35	1.49	1.08
	투자심리도		60	50	40	40	50
	ADR		81.08	77.73	77.11	76.32	69.50
	이동평균	20일	72.08	72.15	72.61	73.44	74.89
	VR		70.69	73.23	59.81	64.48	62.96
자금지표			07/05 (금)	07/04 (목)	07/03 (수)	07/02 (화)	07/01 (월)
국고채 수익률(3년, %)			2.95	2.93	2.95	2.94	2.99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3.41	3.39	3.40	3.39	3.44
원/달러 환율(원)			1,142.30	1,139.40	1,143.70	1,134.00	1,132.40
원/100엔 환율(원)			1,138.34	1,140.41	1,135.69	1,135.83	1,138.12
CALL금리(%)			2.39	2.45	2.48	2.48	2.48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213	23	579	766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3	3	33	-108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10	-38	-24	-35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1,193	-1,278	-28	-120
MMF 잔고(억원)			-	789,753	783,613	766,159	704,818
고객예탁금(억원)			-	180,175	177,919	184,362	198,920
순수예탁금 증감(억원)			-	1,011	-6,027	-17,395	18,474
미수금(억원)			-	1,185	836	811	1,000
신용잔고(억원)			-	44,982	44,696	44,437	44,859